朝鮮日報
今日十二面

社說

그런故로問題

어제本欄에서 廣州郡大旺面細谷里駐在所의 高見巡査가獻仁陵松林속에서 삭장이따는樵夫들에게 銃을노아負傷케한事件에對하야 小許을加한바잇섯다 人權蹂躪的인 銃노흔行爲의不謹愼의甚한것은 다시말할與否가업고 우선治療費를주고遺憾의뜻을表한 그것이同情할만한양하면서 告訴치아니하게할 約을바더간데에 權力을것으로써고 愚民을侮弄한形跡이잇는것을指摘하엿섯다 그런데그後의續報에 同巡査가 따로히그同僚를보내어 銃노흔事件은雙方의和解로되엇스니 別問題이오 山林에서樵採를한것은 森林令違反으로써 告發하겟다고한것은 其間에不純한心事가움즉이고잇슴을보겟다 그는結局압길러銳氣실른기의 計策으로 그告訴를牽制하고 自己의重大한過失을 文飾掩蔽하자는魂膽에서 나왓다하겟다 自己의커질른크고괴로은 過誤를 掩蔽하기爲하야 法規에기대여서 人民을얽는것은 싸지기쉬운權力가진者의 보담 큰過誤가되는것이오 이러한것이 大小의社會的不安의因素로 자라가는것이다

殺伐이何其多

一

營養不良으로因한卒倒 饑死凍死 幼兒遺棄等 生活苦의各面相이 新年劈頭에 느러하나라난다 天候는 이케로부터嚴多盛寒期에 들어가는外닭이다 이에에잇서 各方面의消息이光明을보이는뜻한 傾向을가지오지안코 一律로殺伐的인 氣風이만高潮이다 平南平原郡에잇서 一月一日 祝願의술에醉한一市民이 稅納督促에 바닷기게하든區長에 對하야 싸움을시작한結果 傷害致死의光景에까지미첫다 偶然이나마 甚한慘劇이오 이로써社會相의컴컴한 한구렁이를 들여다보겟다 收入이시원치못하고 負擔한바만허서 貸金으로 物品代로그리고稅納으로 쪼들러지내는失望的인者의 自暴的인發作性을볼수업다 이러한事件은 不祥事이오 그行爲는決코 曲諒할바못되나 그러나 그裡面에흐르고잇는失望的인 그리하야頹廢的인潮流를 看過할수업다 그의압길에 寞寞한憧憬이나 하다못해一定한期待를 그가속에품고서는 이러한狂亂的인發作性에 그行爲를내어맛길수는업는일이다 注目할現象의一片鱗이다

二

朝鮮人은 그自制力이 남달리不足한가? 이것은確實히吾人의考慮를要할一命題이다 特히 醉한뼈의 行動으로보아서考慮할點이다 歐米의人士로서會醉하엿다하는것이 名譽關係에 重大한바이나 紳士間의일이요 街路에서 酩酊함을보는것이 그다지만흔바아니다 中國人에게잇서서는 意外로그例가稀우드물다 安東縣과가튼곳의統計로 보더라도 中國人의酩酊함에依한 事故는거의絕無의일이오 朝鮮人은 [illegible] 이다 酩酊하야過失을저질르기로는 日本人도 例外이아니나 그의 [illegible] 狀態는 커질도이갓된다 오즉朝鮮人이 容易히改新될지 [illegible] 安東縣의 例 [illegible]

와가는것은 大部가空腹에 滋烈한『술』을마심에因함이어니와 朝鮮內에잇서서 大體로 最下層의 貧窮한속에서 光明이업는 推敗의길이안보이는 自然한者이다 하기에념우미들거리가 업다고 생각되는 層의사람들의일이가장만타 이러한種類의殺伐도社會에關心하는者의 特히留意할者이다

一九二九年 國際情勢大觀(四)

安在鴻

軍縮問題篇

『떠그라스、꽤어뱅스』와그의아내인『메리、픽포드』가上海로부터 日本에와서이르는곳마다물결지는群衆에게 숨이막힐지경의歡迎을받고잇는한편 若槻財部의日本全權의訪問을『롤도날드』英首相은 이어서難關을받케한다는理由로 『몰』… 會見을하지못할음이다 軍縮會議는 웃재英米의類顔이오 둘재는日本의角逐이오 그다음英佛의 [illegible] 部의日本의兩全權은 太平洋에서太西洋에배라고떠나기外에 鄭重한國賓의待遇를바덧다 그러나 日本의巡洋艦對米七割要求問題는 結局아모 收穫이업시지나갓다『쎄즈네스、이스세츠』의 個例는 엿날업시表現되엿다 한편으로訪米한後에『롯시마스』의鄕里에서 饗宴을한『맥도날드』英首相은 [illegible]

米國上院 外交委員長『보라』氏의소리이다『米國은帝國主義國이어야할것이다……마치一九一四年의戰前의獨逸과……彷彿하다』英帝國의海軍元帥『로엣슨』氏는憤慨하고잇다『七割要求에讓步할러이면 여당초出席할必要가업다』日本全權、海軍大臣財部氏의聲明이다 國際折衝을압헤두고 一定한외누리에첫大砲를놋는것이라고 軍縮前途는 悲觀하여서는아니된다 樂觀材料가적은만타 이제一九二一一二二年華府會議當時의主力艦比率을보건대

英米 五二五〇〇〇噸
日本 三一五〇〇〇噸

이것이所謂五、五、三比率로 日本의對米六割을 規定한것이다 그런데今年一月一日現在三國中에잇는航空母艦勢力比較를보건대

	隻	噸
主力艦 英	二〇	五五六、三五〇
米	一八	五二五、八五〇
日	一〇	二九二、四〇〇
航空母艦 英	六	一一五、三五〇
米	四(內一隻計劃)	八二、五〇〇
日	二	五三、八〇〇

主力艦에잇서서 日米兩國은아즉도最大限에達하지아니하엿슴으로 모다縮少 建艦延期等을論議하고잇다 그러나 이는그만 是提하지말기로한다 그는主力艦은어찌되엇든 旣定事實이니 우선隱便히리라고보고이에問題되는補助艦의

華府會議 以來의 經過를一瞥하건대 華府會議當時米國은會議의破弊가甚한英國을요 [illegible]

不平憤怒 [illegible] 그럼으로華府會議以後 巡洋艦以外 [illegible] 補助艦建造에 [illegible] 英國은急速한擴張을實行하여왓고 米國은또한이에對抗하야大規模인建艦計劃을 세워왓섯다 이것은必然으로一九二七年의『제네바』會議의 破裂로 되지아니할수업섯는外닭이다

正面衝突 로容易讓步치안을 [illegible] 氣色이업섯고 英本國의國論도 容易히妥協치아니할 氣勢이엇섯다 그는英帝國은그의『롤똑』의게짓고몰고몸이잇서서 그대지구순하게全世界的帝國主義政策의 輸蘇을自己손으로문허가면서 會맛이를려만커 冷淡를지고 잇기에는 덩우그利害가絕大하고 關係非常항에因한이엇섯다 여긔에所謂飽滿의絕頂에서 그衰徵 崩潰의 必然의비탈로숟려덥어가려는 雖大한英帝國이닥가어잇는것이다

兄을敵으로하야、相戰할意思는업다

武漢으로물러가命令에服從할터

◇唐氏、閻氏에게打電

(北平三日發) 許昌에서進退維谷에든唐生智氏는閻錫山氏의河南出動의報에놀래어昨日閻氏에게 予는兄을敵으로싸울意思는업다 予는全軍을들어 武漢에向하야 今後兄의命令에服從할것이다 라고打電하얏더라

閻氏鄭州서 重要會議 各方面代表와

(北平二日發) 鄭州來電에依하면閻錫山氏는三日午前鄭州에到着直時各方面代表者와重要會議를開하얏는데會議內容은아즉不明이더라

一日國民政府 各國代表招待

(南京二日發) 國民政府는昨日元日을當하야國民政府大禮堂에서各國使臣의新年招宴을盛大히擧行하야日、英、佛、獨等八個國代表가出席하얏는데米國使節만은出席치아니하얏더라此는一般奇異한感을주어多大한注意로서對하고잇다하더라

列國對中國 關係益多端

日本을中心으로하야 英、米、佛等一層活躍

(東京電) 米國駐日臨時大使『넷쓸』氏同駐中公使『쏭슨』氏는서로前後하야本月中에着任할豫定인바『넷쓸』氏는歐洲局長『쏭슨』氏는國務次官으로모다오랫동안外交界에手腕을떨치든人物인바『쏭슨』公使는前駐中公使『맥마레』氏가오로지理論的外交로中國을指適코저한데對하야『후ー버ー』大統領의方針에依하야實際的外交로轉換하려는方針으로『넷쓸』臨時駐日大使는日本外務省과倫敦軍縮會議問題에對하야協議하는一面『쏭슨』氏의對中外交를援助할터로 本年의米國對中外交는一新하리라고보인다 또英國駐中公使『람프쓴』氏는新年劈頭北平發南京으로向한바國民政府와의間에治外法權撤廢問題를協議코저하며目下國民政府와佛中安南條約交涉中인『말텔』佛國公使는三月頃交涉을終了하고駐日大使로着任할터인데日本으로는佛國의對中外交를援助할터로本年의各國對中外交는日本을中心으로進行될模樣이더라

新春劈頭에展開되는 印度獨立運動(三)

李瑄根

◇英國勞働黨內閣이 印度總督으로하야금 이가는聲明을發表케한것은 決코 印度를爲하야計劃한것은안이오 其實印度國民運動이 나날이險惡化해감을目擊하고 此에對한脅威를늣긴結果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나 이에문으로 英國議會에서展開된 印度自治問題에關한 質問應答으로 이미明白히된것과가티 英國從來의對印政策은變更한것은決코안이다 그런데印度의穩健派指導者中或者는此를明에 歡喜를마지안는다는報道를드를때 余는 英國의欺瞞政策이 成功을窮케되리라고안미들수업섯다 그러나多幸히도印度靑年들은 이미洋溢히 [illegible] 가잇슴으로 英國의奸計에 사라질어가지는안을리이라고 밋는다、그네들은 英國의老獪한 政策을 國民의面前에 暴露식혀 全印度를 英國의魔手로부터 반드시救하게될것이다

◇印度의自由는 唯獨印度人만의幸福과自由를爲하야 必要한것이아니오 全人類를救濟한다는意味에잇서 不可缺한要素이다 그럼으로印度의自由를爲하야 苦鬪를繼續하고잇는그네들은 即人道를爲하야 苦痛當하며 싸호는것이나다름업다 아서世界全人類에게 몹업는不幸과苦痛屈辱을주고잇는 英國의專制와抑壓으로부터全人類를解放코저야쓰는 그일이

◇아닐도 靑年印度의 참된使命이아니고무엇이라? (쎈ー스氏論文終)

◇上記『쎈ー스』氏의글이비록짧드막은하지만 이얼마나 읽는者의感激을자아내는 힘잇는글이라 任細한具體的理論은못된다하드래도 吾人은 이글을通하야『어ー윈』總督이發表한所謂印度自治案이 그얼마나 曖昧한것이오 그얼마나 奸譎한欺瞞政策에서 나왓는것인가를넉넉히 짐작할수잇는것이니 그것은即 加速度로强大化해가는全印度人의民族的抗爭에 正面으로 此를挫折시길수는업고한便의緩衝策으로 그銳鋒을昏迷케해보자는 大英帝國의奸策以上아모것도안이엇든것이다

◇어쨋든 이것을看破한靑年印度는去十二月下旬以來 國民會議를通하야 그커다란果敢한鬪爭을展開케된것은 이얼마나痛快한일이라 只今까지 自治派의首領으로指目되든『간듸』氏스사로獨立案을提出케까지되엇다한은

◇그런데 이러한즈음 三十日『라ー호ー르』發電報는씨ー크族一派가 市民大會를開하고『편잡』州의官公吏三割을씨ー크族에서 任用치안으면안된다는無理한條件下에 獨立運動을反對하얏다고함은 一見世人의注目을쓰을지안을수업는일이다 그러나印度의事情을 좀더仔細히究明해보면 이네『씨ー크』族이란元來『軍隊的宗敎』라는名稱을가지고온『씨ー크』敎徒로서已로『편잡』州에住居하는族屬인바처음부터親英的態度를 取해왓든것이事實이엇다 그리하야 身體가强大健壯하고武勇을그敎旨로한『씨ー크』族은언제나英國官憲에게어엿비利用當해왓스니印度人軍隊中그大部分이『씨ー크』族이라고할만보아도 짐작할수잇지안으랴 알어서今番『씨ー크』族의 所謂反對運動裡面에는 엇던한魔手가動하이엿스리라는것도 넉넉히짐작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三億二千餘萬의全印度國民中『편잡』州를中心으로不過三百萬內外밧게안되는(此數字는一九二一年米國雜誌(커ー렌트、히스토리)에揭載되엿든것임)『씨ー크』族이 아모리反動한다기로全印度國民의가슴에 몰릴뜻 이러나는反英氣勢를 그엇지막을수잇슬것이라『편잡』州內로만 보드래도『시ー크』族의 人口比率은州內總人口의 一割五分도 못되거든 그네所謂市民大會決議는 官公吏의三割任命을條件으로하얏다함은 에오라지 그네의無理한走狗的野慾을 全印度國民앞에 暴露함에不過하얏슬것이다 이케『간듸』氏가提出한獨立案은 이미國民會議를通過케되어 自治를意味하든『스와라지』라는말의定義까지 獨立을意味한다는뜻으로完全히곳처지고 所謂하게도 印度國族外지 바로날너게되엇다고하니 이얼마나內로自體內의反動을막고外로大英帝國에對하야 果敢한抗爭을宣布한것이라 印度民衆이 한데서호ー기를約束한一九三〇年一月一日은벌서지내갓다 아즉確實한報導가업서 一日以後의印度 그엇더한분김에싸혀엿는지仔細히알수업지만 아모로도全民族的 反英抗爭이展開되리라는것만은 짐작할수잇는일이니『印度人의印度』의自由는 印度人의손으로회收할것이라는 勇壯한부르지즘이悠久하게흘러가든『간지ー스』江畔岸에 예울녀게될뼈 大英帝國은 그얼마나오래갈것이냐? [illegible] (完)

英外務省 草案要求

作成中이라고 日本側은拒絕

(倫敦四日發) 英國外務省은駐在日本海軍武官을通하야日本政府로부터會議에提出할案에對하야大體豫備的의것이라도草稿로알리어달라고그內示를提出한바 海軍省軍縮局長과左近司中將이 目下成案準備中이라는理由에서婉曲히此를拒否하얏다 一方英國海軍側은外務省이單獨으로此種措置를取한데對하야不平의氣色이잇서海軍省部內에서는『맥』首相이英米均勢의原則을承認하고巡洋艦五十隻案을高唱한바 相當한難色이잇스나 表面으로는아즉沈默을守하야何等意見을發表하지안치만米國案에到底히滿足치안는氣勢가濃厚케되어會議가開催된後專門委員會라도되면每事에米國側과衝突될터로英米의協調案은海軍部內에徹底的諒解를엇지못하고그우에外務省軍縮部가完全히意見의一致되지못한것도事實이더라

『맥』氏와會見前

『헨』外相과먼저會見

(倫敦二日發) 今朝十一時米國局長『크레ー지ー』氏는若槻財部兩全權을『그로브나ー하우스』로訪問하고『맥』首相이歸京할때까지 全權이會見치안는事情을陳述하고 外務省에서『맥』首相으로부터의希望이잇스면首相은언제든지會見할터이나 그前에『헨더ー슨』外相과먼저會見하고要件을商議하야달라고出言하얏다 그結果七日午前十一時半外務省에서兩全權과『헨더ー슨』外相이會見하기로決定하얏다

軍縮問題에對하야 英國側冷淡한態度

若槻全權一行과도會見치안코 印度問題로하야沸騰

(倫敦二日發) 左近司中將以下海軍委員等은今朝十時부터또若槻全權以下各顧問等은同十一時부터그旅館인『그로ー나ー호텔』에서定例會議를開하고各國의諸案을硏究하고그對策에遺漏이업도록努力하고잇는데英國側은會議까지아직相當한時日이잇다고하야各新聞이亦軍縮問題를그리論하지안코印度問題가크게取扱되야잇다『맥도날드』首相은三週間의休暇를즐기어日本全權等에는눈도거들떠보지안코悠然自適하고잇슴으로若槻全權等은『맥』首相의當分間休養을妨害치안코저自重하고잇서 [illegible] 『맥도날드』首相이 [illegible] 十分休暇를 [illegible]

會議事項은 來廿日에決定

(倫敦三日發) 海軍會議에서討議될事項의順序는各國全權의齊會한뒤一月二十日『맥』首相官邸에서協議會를開하고決定하기로되얏더라

004451

朝野兩黨의 解散、非解散

民政은解散方針으로 政友는아즉까지逡巡

(東京電) 議會休會後의初日인來二十一日에濱口首相의施政方針演說이잇고이에對한質問을許한後當日이나翌二十二日에解散을斷行할것이라고一般이觀測하고잇슴에不拘하고政友會에서는解散과非解散의迷路에잇서政局의打開가반드시解散에만잇는것이아니라고아즉도政局打開를解散以外에期待하고잇는模樣이다 그리고政友會는最初에疑獄事件으로濱口內閣은반듯이瓦解될것이라고하고잇섯스나同疑獄事件은政友會의豫想과가티進展되지안코이에依한內閣崩壞의期待가至今에와서는全然夢中讒語가되엇든것을알자昨今에와서는兩黨首의會見이나政局安定의相議에依하야議會解散을避하게될것을希望하는者도잇는바犬養總裁의側近者도亦是이를엿고잇는者가잇슴으로그들의말에依하면一月十一日부터實施되는金解禁은日本財界에對하야實로重大한時期를가져오는問題이엇으로이러한때에잇서議會解散이되어朝野兩黨의交戰하야再次財界에벗치게하는等事가잇다면收拾할수업는大混亂을招來하게될는지모르고 未知의危險을부르는者으로濱口首相의眞意는아닐것이다 그리고政府에가장親故잇는岩崎家와犬養政友會總裁와는姻戚의關係에잇슴으로그間稟一脈相通하는바잇다고하지안흠면안될것이라하는바이다 한편은老獪한犬養總裁의일맘으로는如何한術策에出하게될는지도몰으나 이러한兩黨首의會見이라는것은반듯이此等夢想이라고는할수업다 그러나此等說에對하야民政黨側에서는深深警戒하는바잇다고한다

賠償會議開會

(海牙三日發) 第二回賠償會議는本日부터當地에서開催되얏는데十三個國代表가參列하얏다 午後五時부터全權會議를開하고獨逸賠償支拂에關한『영』案의適用方法을最終的으로決定코저協議하얏는데右會議에對하야六國의委員으로부터各自報告를提出한데로여섯번째의委員은他의五國의委員의報告를綜合한것이더라

人事消息

▲故安心田夫人 三日市內唐珠洞一五自宅에서長逝

八面鋒

○治外法權撤廢宣言에憤慨한米國은、蔣介石의新年招宴에도參席치안헛다고
○그어느군과함께、後塵을拜할뿐인、또하나생긴셈음
○갓지안은國勢에、損害는結局어느便에볼는지
○新春거리에、饑死！卒倒！棄兒！이얼마나悲慘한現實이냐
○그러나、한편에는、屠蘇酒바람에마음껏醉하야、떠으나썩은정을비롯거린나
○해가멋귀어도、日常일사나운 [illegible]

猛然！更に大飛躍！

講談俱樂部二月號

感謝、感謝！新年號未曾有의大盛況！値下斷行、編輯의大努力、遂報酬되엇다、二月號는更히大苦心續物은滋味잇게되어更히새로운名作大傑作을滿載 期於히一讀을乞함

村上浪六先生大傑作發表！

快俠鈴木新內

哀調切極한新內節의元祖

(作者의辭) 戀愛의悲哀와人情의深刻함을、一派의流儀의吹出한新內節의元祖、鈴木新內의一代記中에는、各樣의戀愛도잇고、各種의咀呪도잇스며、凄涼한、觀光과무서운怨恨이잇서서、人生여러가지의喜怒哀樂은、不絕히走馬燈과如히、是男의一身을巡하야、凡百人以上의生涯를自己一人이질머진것과가튼變化를所有하여잇다……

見하라！哀婉壯快！

波瀾萬丈！美貌가원수되는劍難女難의一代記

▲嘆きの胡蝶夫人 岸白汀 歐米社交界의花形其有名한日本娘子를보렴로한惆悵小說

▲戰國哀史 最後の貞操 尾崎士郎 敵將에게被捕되어서愛人에게操를세운貞婦

▲女優情史 吾も亦紅なり 川口松太郎 눈물도세우고눈물드지부는悲慘한女優生活의裏面

▲俠盜外傳 鼠小僧外傳 菊池寬 諸大名의肝膽을서늘케한俠盜一齊！代의俠女！豪快하게滋味잇다！

▲戀愛小說 火の翼 加藤武雄

▲美男俠傑 珊瑚重太郎 白井喬二 可憐한美女의付託으로 有州家에드러간美男의運命！

▲戀愛小說 王冠 中村武羅夫 地下室의疑問謎의映畫女優脅迫慘殺 無서운大怪事件！

▲探偵怪奇 蜘蛛男 江戶川亂步

▲德川秘史 處女爪占師 吉川英治

▲俠客講談 馬鹿忠賣出し 磯村野風 男子一代를腕과膽을지내나간任俠兒 痛快壯烈！

▲名作落語 小言念佛 五明樓玉輔
▲滑稽小說 屁車 [illegible]
▲新作講談 眞 望ぶし [illegible]
▲民謠小說 鶯宿梅 [illegible]
▲劍術秘話 武道の德 [illegible]
▲神樣佛樣 因緣話 [illegible]
▲血で書いた日章旗 橫澤千秋
▲浮世面白新聞 尾加
▲お家庭重寶記
▲智惠比べ考へ物面白ページ 末廣さかえ
▲漫畫漫文面白パック (漫畫)

田中光顯伯 警視總監當時の回顧談

名士花形結婚ロマンス

김부고붓그런 다熱愛時代！

佐々木邦先生大力作 負けない男

▲武勇講談 尼子十勇士 一龍齋貞山
▲俠盜異聞 かげらふ噺 大佛次郎
▲江戶情史 お洒落狂女 本田美禪
▲映畫物語 美しき入獄 赤松月船
▲柔道奔鬪 日米大試合 鳴弦樓
▲秘傳公開 金儲け實話 谷孫六

講談俱樂部 二月號 値下げ定價五十錢 (送料三錢)

鍾路署高等主任 檢事局과秘密協議

사건내용은비밀에부치나

前衛同盟送局準備?

작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초등일(初登日)오후 한시경에 시내종로 경찰서(鍾路署) 길야(吉野)고등계 주임은 비밀리에 동법원검사국(同法院檢事局)에 입정검사정(笠井檢事正)과 중야검사대리(中野檢事代理)를 순차방문하고 장시간 밀의(密議)를 한바 잇섯는데 그내용에 대하야는 쌍방모다 절대비밀에부침으로알수업스나 방금종로서(鍾路署)에서취조중이던학생전위동맹(學生前衛同盟)사건의관계자차재정(車載貞)등륙십여인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사건의 검사국(檢事局)송국(送局)을 준비로한 협의나아닌가한다더라

咸興高普生 十日內에送局

취조를마치는대로검사국에

騷擾罪名으로보낼듯

함흥학생사건으로 말미암아 함흥고등보통학교생(咸興高等普通學校生)과 동정을표하고 격문을 배포하여 대소동을 일으킨 함흥서에 검거(檢擧)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 엄중한취조를 마친결과 십여명은 석방되고 남어잇는 십륙명은 소요죄명으로 십일내로 검사국으로 송치된다는데 그씨명과 주소는 다음과갓다더라

劉松周 宋武赫 金炳憲 金致善 任世彬 金世顯(咸興) 文會讚 金基善(定平) 文熙奎 咸明憲(永興) 李裕錫(北靑) 嚴浩爽 曹陽煥(洪原) 趙誠淵(高原) 鄭右鎬(文川) 李壯淑(新興)

新幹咸興支會 幹部는釋放

지난일일에나와

함흥각중등학교생도들검거하는동시에 배후(背後)에 주의자의 선동이나잇지아니한가하야 함흥신간지회간부(咸興支會幹部)윤주(尹柱)리수을(李秀乙) 방치규(方致規)씨외 남상훈(南相勳)씨가검거되야 취조를 당하엿든바 아모관련이업슴이 판명되야 지난일일오후 석방되엿다더라

農校生도釋放

별항 보도한바외가티 함흥 농업학교 학생[illegible] 일부는 동맹(同盟)을 하엿는데 지난일일오후 아홉시에 석방되엇다더라

(咸興藥學校)생도도 삼십여명이 검거되어 취조를 바든바 임이 일부분은 석방되고 오명이 남아잇든터인데 지난일일에모다석방되엇다더라(함흥)

年賀郵便增加

경성부내 각우편국에서 일월일일에 배달한 우편물은 총수 이백륙십만팔천오백십륙통이요 또지방우편국 검사국에서 일월일일에 배달한 우편물은 총수삼백륙만삼천구백사십통이요 이것은 전년 일월일일에 배달한 우편물에 비교하야 경성우편국은 일활이분이 증가하엿다 그리고 격년대비 일월일일부터 삼십일일까지 마튼년하우편물은 경성부내에 삼백사십오만 일천사백구십구통이요 우편국에는 사백사십[illegible]에 비교하면 경성과지방은동일한 비율로증가된 것으로보이엇다더라

晋州社會의 運動者懇談

신간회 진주지회에서는 지난초일일 오후세시에 동회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여러가지 토의를 하엿다는데 그중에는 동회가주최하야 금오일 오후세시에 진주사회 운동자신년간담회를 열리라는바 이모힘이 일천구백삼십년을 마지하는 새해벽두에잇서 운동자로는 가장 의미잇는 모힘이라하야 다수히 참석하기를바란다더라(진주)

京城配達組合 新年懇親會

시내서대문정이정목(西大門町二丁目)칠번지에잇는 경성배달조합(京城配達組合)에서는 오는오일(일요)오후여섯시부터 열빈루(悅賓樓)에서 신년간친회를개최하는바 일반배달원들은 다수지참하기를바란다더라

大邱에大火災

십여명이일시에부상하야

消防手三名生命危篤

삼일 오전세시 오십분에 대구부남산정(大邱府南山町)에잇는 백학식당(白鶴食堂)이란 료리집에서 불이나서 상비소방대(常備消防隊)와사설소방대(私設消防隊)가 총출동을하야 진화에노력하든중 소방수(消防手) 십여명이 중경상을 당하얏는데 그중에 세명은 생명이 위독하야 도립의원(道立醫院)에서 응급치료를 밧는중이며 발화된원인은 그집 우층 화로에서 불이난것이라하며 손해는 오륙천원가량인데 네시삼십분경에야진화가되엇다더라(대구전화)

讚映會解體

찬영회(讚映會)에서는 동회자체에 불상사가 잇서 지난일일밤 임시총회석상에서 해체를결의하엿다더라

東京大崎火災 全燒가十二戶

삼일오전 일시삼십오분에 일본동경부하대기정고전철공소(東京府下大崎町高田鐵工所)에서 불이 일어나서 공장을 전소한외에 부근민가와 철도관사에 연소되어 전소십이호를 내이고 동일오전 세시십분에 진화하얏는데 대기역(大崎驛)도 위험하얏고 전차도 불통이되엇섯다더라

十一人事件 六日에決定

취조하든십사인중에서

不起訴釋放도多數일듯

지난달 이십사일경기도 경찰부(京畿道警察部) 고등과 삼륜경부(三輪警部係主任)의 손에 취조를 마치고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검사국에 넘겨진 원동진(元東鎭)허헌(許憲)등네사람(十四人中三人不拘束)에 대한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사건은 그동안 고등법원(高等法院) 검사의손에 취조를 거듭하든중 지난이십팔일에 일으기까지 삼분을 마치고 그삼분조서(?)를 작성하야 사일재판소 초등일(初登日)에 이등검사는 그조서를가지고 지방법원립정검사정(笠井檢事正)의 의견을 구(求)하야 기소여하(起訴如何)를결정하엿다는데 그결정된내용은 일반에 발표할수업스나 불기소(不起訴)로석방될사람도 적지안흐리라고추측된다더라

元町大火로 五戶가全燒

손해는만여원이나된다

四日曉頭에發火

사일오전 세시십분경에 시내원정(元町)일정목일백팔번지과실장사하는류개원(劉開源)의집에서불이나서 그이웃집에 역시과실장사하는 상포영차랑(相浦榮次郎)의집에연소되어 가맹렬한 불길은그옆집구두장사하는김모의집으로옴겨붓고양복장사하는소화전행태랑(小火田幸太郎)의집과시탄장사하는 삼묘명위(森卯兵衛)의집으로삽시간에연소가되어 전소하엿다 경성과 룡산의소방대가 거의전부 출동하야 소방에 진력한결과발화한시 거의한시간만에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요 손해는약 일만팔백여원이라더라

◇基督信友修養會 그리고신우회경성지회(基督敎信友會京城支會)에서는 오일(五日)요일에수양회(修養會)를열에와가티개최한다는바 회원은 물론이요일반의참가도환영한다더라

一、時日 一月五日(日曜)午後三時半

一、場所 鍾路中央禮拜堂

一、演士及演題 新靑年의希望 李容卨博士

豫審判事四人中 思想雜犯에各二人

◇금년부터새로늘은사상예심판사

思想犯豫審多少緩和

과보한바와가티 뒤를니어 계속적(繼續的)으로증가하는사상범(思想犯)을계일만히취급하야심리하는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는 사상전문(思想專門)으로 고등(高等) 지방(地方)량법원에 검사 한사람식을 전임으로 두고그산적(山積)한사건을 심리하는 일방 그들손에서 기소되는 다수피의자는또한 사상전문 예심판사외지배치하야 그사건을 예심취조케하든터인데 종래 사상전문 예심판사로는 오정(五井)판사외한사람으로 삼십여(三十餘件人員三百餘名)사상 사건을취조하는관계로 한사람에게 대한예심결정은 느저도일년 내지삼년이라는 장구한시일(時日)을될어 그피의자 들에게도 적지안흔 불평을 늣기게 할뿐 아니라 실로인도상(人道上)중대문제라하야 사회적으로 물론(物論)이 비등하든바 드듸어그여론을완화하기위하야 사상전문 예심판사한사람을 증원(增員)하기로되엇다 그리하야 금년일월일일부터이를 실현(實現)케 하고 종래 제삼예심(第三豫審=思想雜務)점 脇판사를 사상전문예심판사로 임명하야 금일 (초등일)부터 그예심사무(豫審事務)를 다음과가티 정돈하엿는데이로서 가속도(加速度)로 증가하고잇는 사상사건의 예심진행은 만히 완화(緩和)케될것을 예측한다더라

▲第一豫審 五井判事思想專門豫審

▲第二豫審 脇判事思想專門豫審

▲第三豫審 吉川判事雜種豫審

▲第四豫審(新設)刑事雜犯豫審

公判에도 思想專門判事

택조로하야속히열독케

進行을쌀르게한다고

별항 사상전문예심(思想專門)판사한사람을 증치하야물밀듯이밀려오는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예심취조를 신속케하는일방 동법원 형사합의부(刑事合議部)에는사상전문만심리(審理)할판사한 사람을 증원(增員)하기로내정되엇다한다그실현(實現)도 조만간 발표될것으로,종래장구한 시일을예심에서 지내고공판에 회부되어도 그방대(尨大)한기록 열독(閱讀)을구실로하야 오히려반년내외(半年內外)의 장시일을요하게됨으로이에전문재판관을두어 전문으로그사건을 담임케하야 방대한 기록을택조(宅調)라도식하어 그공판진행을쌀리하게하리라더라

清凉里驛頭에 流離하는農民群

◇하로에도삼사십명식되어

新春을마지하는窮民들

한재(旱災)기타의영향으로먹을것이업서남북만주(南北滿洲)기타지방으로 류랑(流浪)의 길을떠나는 사람은 신년(新年)의새봄이되어것만의연히변함이업시 일월원조인 작금만하야도 경원선청량리 역(京元線淸凉里驛)한곳에서 서북간도(西北間島)로 향하는 남부녀대한가엽슨농민(農民)의 수효가 하로에평균 삼십여명식이 된다는데 이와가튼현상은 궁춘(窮春)이 박두함을 따러 더욱더욱그수효가격증될것으로 일반의 주목을이끄는터이라더라

自働車自轉車와 電車의衝突

사일아츰 여덜시 오십사분에시내 룡산련병장(龍山練兵場)뎡류장근처에서 던차 일백삼십일호가 진행하든중시내관훈동(寬勳洞) 일백구십륙번디 세야정치(細野政治)가 몰고가든 『사이드카-』와 충돌이되어 자동차리거는 부서지고 타고잇든세야(細野)는 다리와얼골에 이주일동안이나 치료할상처를 입엇다더라

巨濟海岸에서도 漁父二名溺死

暴風을맛나遭難

지난[illegible] 삼십일경에 거제도 [illegible](巨濟島[illegible])해안에 [illegible] 권긔해 안어닷(?)을 놋코자 [illegible] 바람는 [illegible] 닥쳐오는 물결에 [illegible] 닷이발각게 되어 방망초에 부딋치어 선원과함께 선체가 전복되어 네명에선원은 겨우사선을 돌파하고 간신히해안까지 헤여나왓스나 권긔두사람은무참히 죽엇다는데 그의가족들은 사체도안고 애통하는광경은참아볼수업다더라(진해)

數百勞働者가 深夜에襲擊

新勞働部幹部의집을

구로동조합원들이드리처

江景署員出動鎭押

지난이일오후 여섯시경에 강경서뎡 수문리(江景西町水門前)에서구로동조합원(舊勞働組合員)수백명이 몰려와서 신로동부원(新勞働部員)삼십명을구타중상케하고 바로선업조합(船業組合)을포위하고 또 조합원 륙십을구타중상케하고 다시 음식영업자최선경(崔善敬)의집을차저가서주인을찻다가 마츰내 출타하엿다함을듯고 분개하야 그의행수라는녀자들을 구타하고 각처로분산하야 신로동원을 차지려단니다가맛나면 구타중상케 하고멋때는 민우회사무소(民友會事務所)문예구락부사무소(文藝俱樂部事務所) 기타멋사람의집을수색하며 불는 폭한 행동으로 와우정을치며 강경시가를횡행할지음에 경찰서 에서는지금 총동원을 하여진무에노력하는일방 각처에서는 부상자들병원에 련속 입원케한 사실이잇섯는데 그사실 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 일월일일 강경선업조합에 나무배 한척이드러와슴으로 신로동부원이하륙을보고수십명이달려와서불너로방해함으로신로동부원은할수업시경찰서원을 립회케하고 나무를하륙하랴해도 절대불응하고나종에 립회한경관 에게 까지폭행하고 중재에 노력한여러사람 계 중상을 입히엇스나경관의 진구로 해산하얏는데이튼날오후 칠시경에 나무를 다시하륙 하랴할시음에 뎌고총회에 집합하얏든 구로동조합원천여명이 총출동하야 이와가티 수십인의 중경상자를 내이고 신로동부를 원조하야주는단데 또는 개인의집을 일일이습격,구타,모욕하며시가를횡행하엿다는데 치명뎍중상을 당한사람은 오길수(吳吉洙)현데외수명이고 중경상을 당한 사람은부지기수라하며 업무에대한 손해도 적지아니함으로 부상자들은즉시병원에가서 진단을바더서 고소를 데긔코저 하얏스나사세 험악한 만치 거절을당하고경주 지방으로 가서진단을밧엇다는바개사오개월이상치료를요한다는진단을 연출하엿다더라

各團體ㅣ 對策講究

경찰서에선 중재를한다

별항과가티 구로동조합의 습격을당한 각단체에서는 대책을강구하기위하야 임원회또는 긴급총회들을 준비하기에분망하다하며사상자는 피해자신동자들 계속취조하는일방으로각단체의눈귀를울일고 중재에 진력 한다더라(강경)

종명자

▲마치봄날과 가티 따뜻하든일기가사흘이나 쭉 부러갑작이치워젓다▲치울때는치웁고더울때는더워야조흐니까▲일괴기상도로치워진것은별로이상할것이업스나▲다만기정되는것은이치운날에며울것이업서서 굼주린 몸으로동사(凍死)하는 사람이 적고생기는것이다▲오―봄은왓것만이따이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겁거운봄이 온날이냐? 더운계남고 배불리먹는 유복한사람들은모름직이 긔한에 우는사람들에게 따뜻한 동정을베푸러야할것이다

檢擧俳優中 五名釋放

삼일정오에

종로서의영화배우검거사건(映畵俳優檢擧事件)은사건일체를삼일오후에 고등계로부터 사법계로옴기어 등전사법주임(藤田司法主任)이 엄중취조중인데사건관계가 비교적적은김모(金某)외네명은 책임자의보증을밧고사일정오경에 석방 하얏스며주모자(主謀者)로지목되는나머지삼여명은방금계속 엄중취조중이라더라

◇靑年會日曜講話=종로청년회에서는 오일오후세시에 정인과(鄭仁果)씨가 강화하리라고

◇中央敎會講道=중앙교회에서는 일요일오전열한시에 새해를맛는한성웅(聖雄)이란 제목으로김창준(金昌俊)목사가 강도하고 동오후일곱시에는 긔독교문명(基督敎文明)이라는 제목으로한치진(韓稚振)박사가 강독하고

◇원정에도화재

朝劇키네마超特作映畵 ……○…… 金永煥監督第三回作品

젊은이의노래

主演―羅雄氏·金靜淑女史―興行價値百萬圓·原作尹相賢氏

新春映畵界를 燦然히빗내일 朝鮮映畵드듸여 五日낫부러封切

이한篇의珠玉的映畵는여러분압헤낫하나게되엇다 기억하서요 一月五日낫부터封切됩니다 朝鮮劇場

皮膚,尿病,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京城黃金町入口日本生命舘 診察 十二時半까지及夕刻

一月五日낫부터超特別大興行

◇파라마운트社特作 名花에스터랄스톤嬢主演 珠玉名篇 脚光의影 全八卷 女子의이야기입니다 戀과名譽에서煩悶하는엇던

◇EBO社特作映畵! 下水道 全八卷 絶對優秀映畵를見失치마시요 下水道! 下水道! 오래기다리시는作品巴里의名物巴里의名花!

◇朝劇키네마社超特作 金永煥監督第三回作品 젊은이의노래 全十卷 原作尹相賢氏 主演羅雄氏金靜淑女史 興行價値百萬圓!絶對娛樂本位의映畵 무대見失치마시압

豫告 消防手달마지!樂衣의騎士「산송장」艦隊入港

파라마운트社封切 朝鮮劇場 電話光一二八一

一月五日晝間부터 新春劈頭第二週의 三大名篇特別封切

◆獨逸우파超特作文藝映畵 鬼才두도위피엘갈氏監督 왈스의꿈 十卷 樂聖오스카수트라우스氏오페라及한스뮤렐氏原作에서映畵化한絶對優秀한珠玉篇! 滿都人士여!綺麗典雅한왈스의메로듸에서흘너나오는아름다운靑春의歡喜에마음것醉하야보지안으시렵니가?

◆FBO超特作品 쏘지,B,사이즈氏監督 決死的大活劇 掠奪軍 七卷 言語超絶悲絶悽絶한大活劇

◆FBO傑作名喜劇 처스터콩크린氏主演 택시十三號 七卷 처스터콩크린氏半生의代表的傑作喜劇이라고斯界의定評이잇게되는特作品

特別豫告次週는 로이드스피데이, 어머니封切

高級常設 團成社 (電話光九[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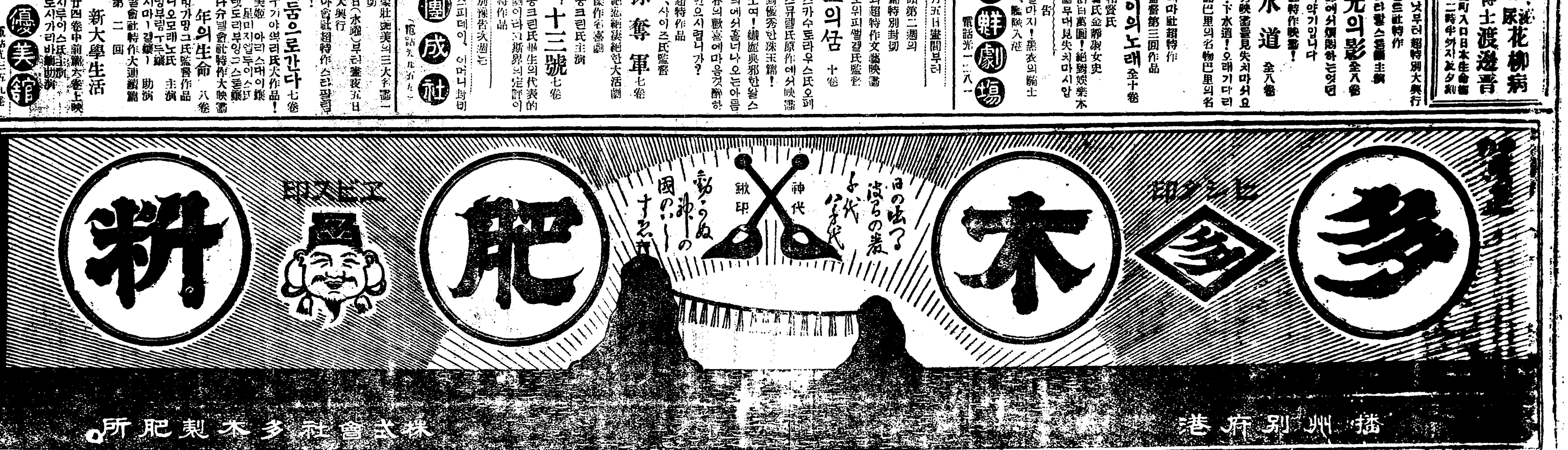
灼熱的豪壯艶美의三大名畵一時大封切 當一月一日(水曜)부터晝夜五日間超特別大興行 코럼비아會社超特作스타팔리티大提供!

大畵 어둠으로간다 七卷 巨匠호랑구가야보리氏大作品!

美姬아리스대이嬢 名星미지엘두이스氏 主演 珠玉篇 一年의生命 八卷 巨匠아리가뮈그氏監督作品 퍼스트나슈낼會社特作大映畵 名花아이링·부링구투孃 名花도로시마-갈孃 助演

유니버살會社特作大通續篇 第二回 學窓로맨쓰 新大學生活 全十二篇廿四卷中前篇六卷上映 名星도지루이스氏主演 名花도로시가리-바孃助演

市內觀鐵洞 優美舘 電話光三五九番



1929年間의 世界弱少民族動態

阿富汗斯坦의內亂 【五】

李如星

阿富汗의動搖

阿富汗斯坦은 北으로 露領「투르키스탄」, 西으로波斯 南으로는 『베루치스탄』, 東으로『파밀』高原과接界를接하야面積約二十四萬五千方哩 人口約一千萬을 算하는 一小王國이다 이나라는 『岩石과 暗黑의나라』라한바와가티 그다지 알키울만한 나라가못되는것이나 그地點이露英間에介在하야가티 英露勢力의 角逐場이되여온것만큼 世界政局에 한重大한 注意를 喚起하는것이다 나는 一九二九年間의 事情만을 記述코자하는者임으로 그歷史的變動은 一一히말치안코저하나 一八七八年以來로 同國은 英國의保護를 밧게되고 一八九九年부터는露國의 干涉도 또한滋甚하게되어 英露의葛藤은 漸次露骨化되엇든것이다 그러나 日露戰役(一九〇五年以來) 露國의內亂을乘하야 英國은 每年百二十萬圓의年金을同國에 支拂하야 同國은 完全히 英國勢力下에 두게되어 大戰後까지 이르럿스나 親英王『하빕울라』汗이 暗殺된뒤 그三子 有名한 『아마누라』汗이即位함에 民黨에順하야 從來의親英政策을抛棄하고 一九一九年五月에는大膽히 對英宣戰을 布告하엿스며 그結果 成功하야英國의支配를 버서난阿富汗斯坦은專制國에서 立憲國이되고 또汗이 內治를힘쓴外닭에 治績이大擧하엿든것이다 그리고 赤露, 波斯, 英國等과 各各條約을매저 자못그政局의 安定을 보게되엇스나 元來로 頑固한 國敎徒를 만히가지고잇는 同國은 『아마누라』汗의 急進的歐化主義에 反感을가지고 또英帝國主義者의 策動을입어, 一九二八年十二月에는드되어 印度國境에서 叛亂이일어나게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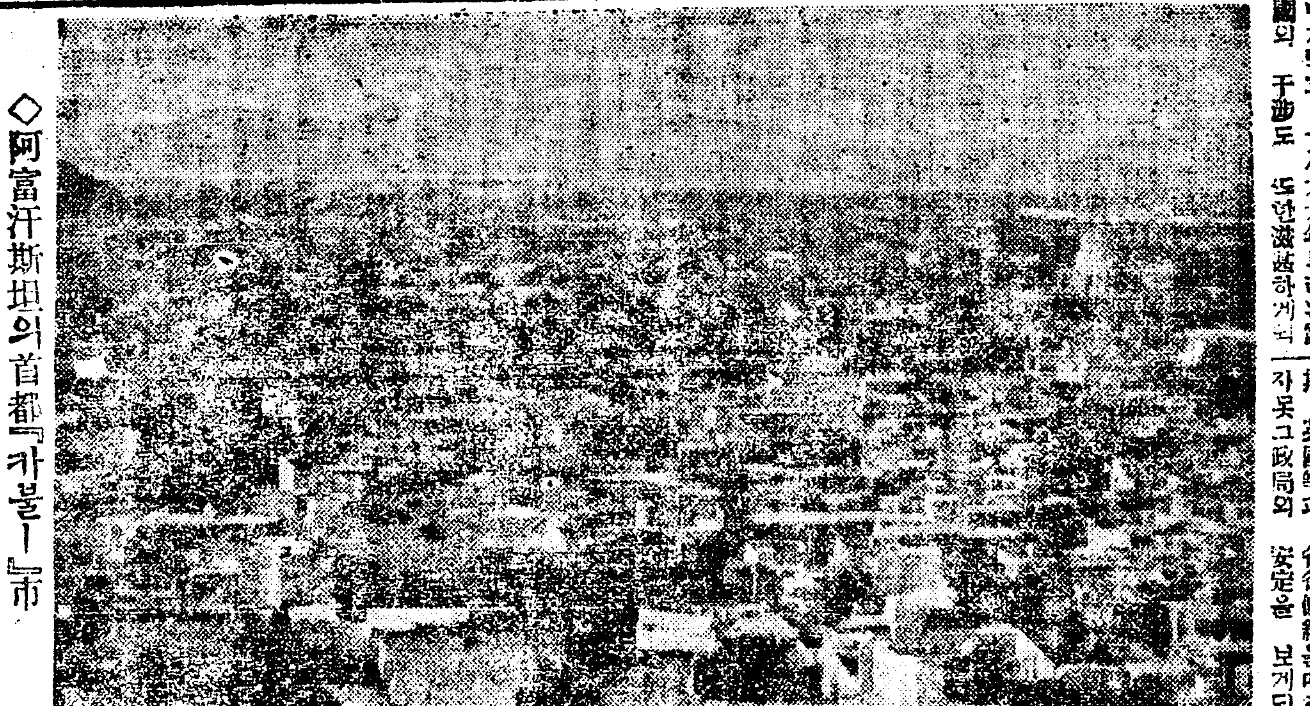
實로 同國의發展을爲하야 遺感스러운일이엇다 그것도 最初에는 政府側軍隊가 能히鎭壓할수잇섯스나 數旬後叛亂의形勢惡化됨에싸라 『아마누라』는 그異母兄『이나야누라』에 王位를讓하고 飛行機로서 國都를 … 『이나야누라』는 그와志氣를 相通하는 그의叔父『나쥬나』汗을 세워서阿富汗王을 삼고 自己의 … 繼承케하엿다 阿富汗斯坦은『아마누라』의改革前外지 財物稅를 바더오든터임으로 그人文의未開한程度를 足히 …

…에는 昨年三月下旬 … 明의임이다 그뒤『아마누라』는 親近한麾下의部卒로서 果大力戰하바잇섯스나 昨年五月頃外지 連戰連敗되엇슴으로 不得已『카부-르』를떠나 孟買經由 歐洲로 亡命케되니 頑固한回敎의反動派를 地盤으로하야 王으로僭稱하는叛賊『바차사코』가 그成功을 즐겨한것은 不能可知이다

그러나 『바차사코』의 運命도 길지못하야 이즈러지게되엇스니 이는 『바차사코』가그뒤곳 暗殺되고 만것이다 이것은 『아마누라』의 再起를可能케하는것인同時에 新興阿富汗斯坦의 再興을 말하는것이 안이면안될것이다 果然 『아마누라』는 … 本主義的 또立憲主義的君主가 되야政務를治하는배잇서서 그國內交通의 一大障壁인『힌두쿠시』

山賊等에『런던』이 數업시 鬪니게되고 國民또한 政治에對한理解가잇다하면 英、露兩國의 勢力角逐은 實로그에正比例하야 盧頭치안을수업슬지니 이곳에바인不安의씨는 무旲英帝國으로하여금 가장큰 威脅을 늑기게할것이다 阿富汗斯坦人은 눈이잇스면 印度를볼것이오 小見가안이면 帝國主義者와의 合作이 얼마나 두려운것을 알수잇슬것일지니 現代弱少民族의 그一般的去就로보아 露國은 悠悠히 그親近政策에 成功하기쉬우며 따라서 幾多의波瀾은 잇슬망정 印度革命의 길을 닥그라할것이다 그러나 누가阿富汗斯坦이 第二의土耳其안된것을 保證할것인가 그러나 阿富汗斯坦이 第二의『베루치스탄』이못될것만치는 確實타할것이다

◇寫眞說明 『아마누라』汗의 夫妻(上)와『파챠사코』(下)



◇阿富汗斯坦의首都『카불ー』市

過去一年經濟의回顧 (四)

우리經濟界의打擊과 外資의劃時期的發展

◇……裵成龍

그리고合計에서는 、二九一九千圓이 再昨年보다 減少하얏스니 結局再昨年의 移出貿易에서는 一四,九〇五千圓의 移出超過이고 昨年은 三六,九八九千圓의 移入超過이니 朝鮮의 對日決濟에잇서 昨年은再昨年보다 그만치 不利하얏든것이다 그主因은 大槪 移出品의 最多量을 占한 米穀의移出이 前年보다 훨신減縮되엇는同時에 朝鮮博覽會에서需要한物貨流入이激增하야移入貿易이旺盛한外닭이오또昨年一月以降對外

輸出入貿易

額에對한 十月外지의累計數字를 一瞥하면 (單位千圓△은減)

區別	昨年一月以降十一月外지	그前年一月以降十一月外지	增減
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

이다 即그輸出은 再昨年보다 좀增加하얏고 輸入은 좀減退하야 그貿易額合計와 그輸入超過額은 減小한것이다 그럼으로 昨年의 朝鮮貿易은 對外國貿易에서는 輸入超過額이 減小하얏스나 對日本貿易에서는 移入額이 激增하얏다 이러한輸移出入額增減의 趨勢는 最近朝鮮貿易事情에 一貫하는바이라 朝鮮에서의外國商品이 驅逐되고 日本商品이 더욱 販路를 擴張하는結果이니 적어도朝鮮에서 日本人의 經濟的發展이 繼續하는때外지는이러한狀勢로 矯正되지아니할것이다

또昨年은 朝鮮의 對日貿易과 產品의 季節的資金化에 重大한影響이잇는 朝鮮米의 日本移出이 크게問題되엿다 米穀法을 朝鮮에도 實施하게되얏고 朝鮮米移入의數量制限及價額調節等問題들 日本政府의米穀調査委員會에서 二十餘回에亘하야討議를 繼續하얏다 日本食糧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朝鮮의 產米增殖計劃이 나타나고도 이제는 朝鮮米의 日本移入을 制限하라는것이다 結局 同會의 最後的決定은 總督府로하야금 月別

平均移出策

을取케하얏스니 이로써 總督 … 度부터 實施하게되엿것이오 鮮米의 大量移入이 日本米價를 떠러트리고 日本의米生產者가 生產費를 償치못한다는 意味에서 엇더한方法으로라도 朝鮮米의 自由移入을 禁制하라는것이니 이는 朝鮮產米業者에게 犧牲을 强要하는바이라 이미產米增殖을 圖하고 그多한꿀로만販賣케하는 貿易狀態를 만드러놋코는 그移出을 不自由롭게하야써 日本米價와 朝鮮米價에差等이 잇도록하는것이니 日本의朝鮮을 經營하는 한有力한 經濟的意圖인 廉價原料의 供給을 强制하는한露骨的形式이다 그러나 朝鮮內의 日本人의產業的發展은加工產業에外論이오 原始的原料工業에外지 손을 펼잇게쎄치게된것이다로는 利權을 獨斷하고 產業領域을 獨占하야 朝鮮產業界에中鍵이 되이쎄의 朝鮮產業을犧牲함은 곳그러한 獨占產業者들을 犧牲하는것이다 此에對하야는 여러가지方法의 保護와 便宜를 特殊한策略으로 不辭하는바이지마는 그로써滿足치안하야 日本人들은

自業擁護策

을 講究하고 不平을 吐露하다 그러하야 그殖民地에서의 活動을 그本國全體의 繁榮을 爲하야 犧牲하지안으려하나니 이러한傾向은 발서 朝鮮에도 完然히 나타난다 그들의 勢力이 朝鮮產業에 이미盤根錯節하얏스니 朝鮮產業制度를容自에利害觀念으로써 云謂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最近朝鮮은 해마다 食糧不足狀態에 싸지엇다 해마다 繼續하는 不作임에 不拘하고 朝鮮米의 日本移入은 依然히 巨額을占하는것이니 여긔에서 外米粟의 輸入이 激增하는 一般的狀勢를 묘하는바 이朝鮮의 不作、飢饉는 … 入

外米의制限

令을 一個年間延長하게된것이다 朝鮮米를 말고 外米를사먹게하는것이니 이는 慈意不足인 現狀에서는 엇지할수업는바이다 또朝鮮의 해마다 不作하는 最作狀態는 昨年에 이르러서 爲政者들로 하야금 所謂『混食制度』라는것을 말하게한것이다 穀作農耕으로는 不作期의 危險을 避할수업스니 副業을 獎勵하야 穀作을 失敗한때에 幾分의收入이라도 엇게하라는것이다 이러한方針으로 해마다 急速하게 廢敗해가는 朝鮮農村經濟를救濟하라는말이니 얼마만한姑息策인가 그러나 다른便으로 朝鮮안에서 外來인 資本의 商工業企業에 活動하는 氣勢는 極히 旺盛한것이다

過去의 朝鮮을 달려간 庚午年

―十週甲前에는―

還都反對의 三別抄의亂

高麗의對蒙反抗運動 (3)

文一平

高麗一代는 塞外種族의 侵擾이더니만치 外患이 만흔것이엇섯고 君弱臣强이 特色이더니만치 內變도 적지안핫섯다 작으면 國初王規의 陰謀가튼것 크면 庚癸武人의凶變가튼것으로 이루枚擧할수업거니와 그러나 그중에國都에關한問題로말미암아 닐어나게된 叛亂은 오즉 둘이잇슬뿐이니 하나는 平壤에 遷都함을 主張하다가 그目的을 이루지못하매 叛亂을닐키게된것이오 하나는 開城에 還都함을 反對하다가 그뜻이 達치못함에 叛亂을 닐으키게된것이니 前者는 妙淸의亂이며 後者는 三別抄의亂이다

그러나庚午年에 닐어난事件은三別抄의亂임으로 여긔서는 다만三別抄의亂을 簡單히 敍述하려한다

그러면 위선三別抄란 語義는무엇인가 左別抄,右別抄,및 神義別抄를 合하야稱함이니맨처엔盜賊을 防止할目的下에서 特設한夜巡警隊에 不過하엿지마는 그後차차자라서 權臣의 爪牙도 되며 政爭에利用되기에맛처서는 그弊害도업섯다고 하지는못하리라 그는어찌되엇든지 三別抄의直接原因인 還都反對의理由 그것을 알고십흐다 녯서울開城으로 다시돌아가는것이 그분일이어늘 웨그리反對하엿는가 그裡面에는 반듯이 무슨曲折이잇슬터이다

그는다름이아니라 高宗十九年 蒙古亂을 避하야 江華에 서울을옴긴以來 이에까지三十九年동안 國都를지엇던 權臣의天險을거연히버리고 아무리 還都라해도 防守에困難한陸地로나아가는것을 즐겨아니하든배문이다

政府에서는 三別抄의異心품은것을 危險視하야 곳解散을命하는同時에 그名簿를빼앗서감으로三別抄는스스로疑心하되올치 이名簿를蒙廷에보내여우리네를 畢竟叛徒로 몰려고하는것이다 이미로잇다가 蒙兵에게 屠戮을當하는것보다는 차라리機先을制함만 갓지못하다하야 이에 武器를들고 닐어나게된것이니 이로보면 三別抄亂은蒙古에對한 一種反抗運動이라고 할수잇다

高麗史 裵仲孫傳을 據하면 이亂이 爆發될때에 사람들을 식혀 國中에 큰소리로부르지즈되 蒙兵이 갑작이와서 人民을殺戮하니 國家를도으려고 하는이는 모다毬庭으로 모혀오라한것을보아도 이것이一時的動機에서 나온것이겟지마는 蒙古에對한 敵愾心의어떠한것인것은想察할수잇다

그러나 그애들이커高麗朝廷의處地를 생각하면 開城으로 還都하지안흘수 업게되엇다 웨 그러냐하면 高麗가 江華가튼 海島에 入據한것은 처음부터 蒙古에 對한防守의必要에서나온것임으로 蒙古는 언제든지 **高麗에** 向하야 兩國平和의絶對條件으로서 出陸을要望하는쌔문에 高麗에서도 出陸하라한다 聲言은하면서도 實現하지못한것은 蒙古의侵暴을 依然히畏怖하엿슴이다

蒙古가 陸戰에는 長하나水戰에는 短하야 厥後日本을侵伐할째에도 몰이여高麗水軍의힘을 빌리게쯤된 形便이엿슴으로 蒙古가前後三十年을두고六回나高麗에 大擧入寇하엿스되 江華의좁은海峽을 건너지못해서 高麗政府가 그만큼이라도 붓전커나간것이다

그러더니 이쌔元宗이 權臣林衍의손에 廢位되엇다가 蒙古의後援에依하야 다시復位가된關係上지금外지蒙古의要望이든出陸을斷行하지안흘수업섯다 그러나어느意味로는 出陸일 蒙廷에絶對服從을 表示하는것인고로 三別抄의反對를 밧게된것이니 말하자면 **蒙古에**게 最後로의 抗拒를試한것이 三別抄亂이다 丹齋申采浩氏는 이三別抄亂으로서大朝鮮精神의 發露라고稱하엿다 그것이과연 그러라고斷言함에는 今後에도 좀더研究함을要할지나 普通叛逆과 同一觀할수업는것만은말하야둔다

高麗內亂중에잇서 對外的으로特殊한意義를가진 三別抄亂이叛逆自體로서도 것지마는政治的으로 思想的으로 깁히吟味해볼必要가 잇는줄로 밋는다 將軍裵仲孫과夜別抄指諭 盧永禧等의 一號令下에 닐어나기는 元宗十一年庚午(西紀一二七〇)六月이니 시방부터 六百六十年前으로서 今年庚午가 十一週甲재된다

그네들은 먼저承化侯溫을마자다가 님굼으로삼고 政府를 組織하야 獨立國家를 세운뒤에 어되外지든지 **江華를** 固守하려고애를썻지마는 江華에는오래잇을수가업슴으로 珍島로옴겨갓다가 거긔서 麗蒙聯合軍에게 一朝大敗하게되여 다시濟州島에入據하야 무릇四年동안에 월여외지 麗蒙軍에게 敗滅되엿다

江華島로서 珍島로서 濟州島로서徹頭徹尾 海島를가지고小獨立國을삼아 義氣堂堂하게도蒙古와및 蒙古에屈從하는 元宗과對時하야 最後一人에 이르도록 惡戰苦鬪한것을 보면비록敗滅이 되엇드라도 오히려 論榮이 잇다하겟다

謹賀新年

004452

泰安

忠南泰安 面長 明珪善

泰安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泰安郵便所 所長 藤戶次郎

泰安釀酒組合

泰安商會

泰安 金圭恒

泰安 李時雨

泰安 白南復

泰安 白雲興

泰安 至誠醫院

朝鮮日報泰安支局 李珍雨 申恒均 權昌旭

所遠公立普通學校

泰安市 敎科書雜貨商 高橋佐右衛門

忠南自動車停留所

泰安面事務所 金秉煥 姜洪來 金東旭 金應濟 尹道完 全秉春 鄭宣模 孫兌煥 李基大

泰安金融組合 金東珍 金東完 文瑋燦 朴學善 金昌福 趙文鎬

理事 山下達雄

泰安公立普通學校 田浦秀昭 申英柱 鄭憲台 安明善 鄭聖模

泰安司法代書所 李華鶴

所遠面 面長 趙載九

安眠面承彦里 蔡奎龍

安眠面承彦里 金承泰

近興面事務所

安眠面長 朴準機

遠北面事務所

遠北面新斗里 面協議員 崔永儀

遠北面黃村里 面協議員 金相培

遠北面防葛里 安載元

南面事務所

南面達山里 學務委員 崔秉契

南面夢山里 學務委員 金寶斗

泰安面長山里 李玹洋

泰安面長山里 金無名

泰安面上玉里 金基昌

泰安面不岩里 面協議員 嚴珪喆

泰安邑 尹源淑

梨北面宗山里 李宗煥

泰安市 絹織布木 光東商會

泰安市 自轉車販賣 兪炳主

絹緞布木商 崔應漢

絹緞布木商 崔元錫

忠州

忠州邑錦町 朝鮮料理 瀛洲館 主 劉鍾一 妓生一同

忠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忠州邑錦町 朝鮮料理 吾妻館 主 陰在享

忠州郡廳 職員一同

忠州邑 忠一醫院 鄭興熙

忠州邑 朝鮮料理 花盛館 主 洪 妓生 同 澤蘭 同 錦珠 同 錦波 同 山仙 同 彩玉 同 蓮紅

忠州邑大平町 理髮業 鄭雲和

忠州郡龍山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忠州大平町 土木建築用材料 木材及左官用材料一式販賣 朴榮學

忠州郡可味面文化里 崔東秀

忠州郡山尺面松江里 吳鳳煥

忠州邑虎岩里 鄭熙秀

忠州郡可味面文化里 崔齡植

忠州郡嚴政面院谷里 李興

忠州錦町 白夏鉉

忠州驛長 武村立誠

忠州邑大平町 黃雲西

忠州金融組合 職員一同

忠州警察署一同

忠州邑 三光運輸合資會社 李珪鎔

忠州本町 大成商店 孫海成 電話六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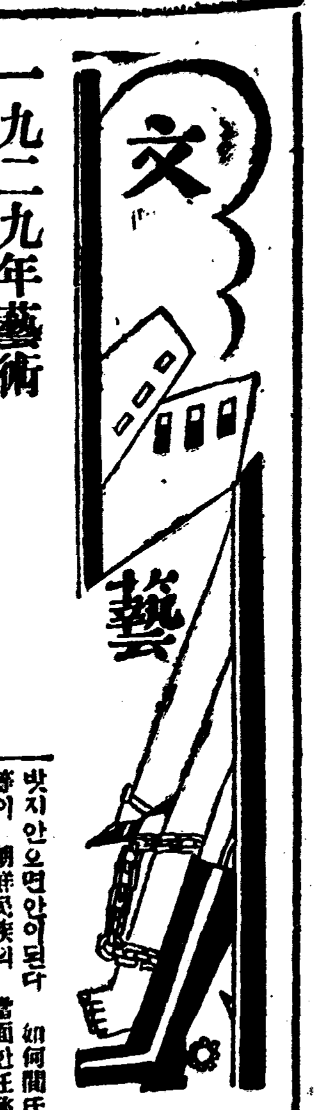
忠州丹月里 李亨栽

忠北忠州本町 柳原印刷所 柳根榮 電話一二〇番

忠州郡可味面 面長 李鍾淵

忠州面職員一同

忠州本町 中華洋服店主 李字甲



一九二九年藝術 論戰의歸結로서 (五)
新年우리進路를論함
朴英熙

(四) 階級的民族文學의任務는 무엇인가?

우리는 上論한階에서 말은바 階級的民族文學或은 民族主義意識에關하야 論하엿스며 또한그非現實性, 混亂性을能히차지별수잇섯스며 그虛構的階級論을摘發하엿다 그러면問題는 簡短하다 더다시 論할것이못될것이다 그러나論鋒은 最終까지 追及하지안흐면 아니되다 그럼으로서 또다시 이章을草하는것이다

이곳에서 理論을 展開하기위해서 蘆風 梁柱東兩氏의『階級的民族主義文學』과 階級民族戰力並合』文學論의 存在를 이究明이 終結되는데까지만容認하여서못코 論調를 進展시키기로하자 이階級的 民族主義의文學論은 이論調를爲해서 그存在를 認定한다하면 必然的으로 追及해서오는것은 그文藝 藝術의活動과 그任務에까지 어르게되는것이다 그外남은

▽……이文學 이『藝術至上主義』或은『藝術享樂主義』의文學이 아니며 그文學의根據理由가 民族ㅣ(現實的으로)ㅣ意識進展에잇고 社會的意義에 잇는外닭에 必然히 이問題의對究가必要하다 이것을 例證하려면ㅣ

蘆風氏曰ㅣ『朝鮮民族은 以上에서對한바 民族의하나로서ㅡ(中略)ㅡ朴氏에서呻吟하는 民族이다』 그럼으로 『上述한바와如히 民族的××意識일수박게업다 그럼으로로 그民族에게必要한 또는要求되는××는階級的民族感情에서솟는것이오ㅡ……(蘆風)ㅡ 『朝鮮民族의 『當面한任務』ㅡ(點은朴)ㅡ自體, 苦悶, 哀想, 鬪爭, 歡喜, 이와가튼것을 再現하며 創造하야外……(蘆風)ㅡ

▽……그리고 氏의『文藝制作의生産過程』이란欄에『第二』以下의글을 引用하고십헛스나 意味不通으로 引用치못하엿슴을 유감으로생각한다

그러면 上論한引用句로부터 우리는 階級的民族文學派의文藝論이 實로藝術至上主義者의 所論과 相異함을 알엇스며그의『朝鮮民族의當面한任務』라는데로부터 그의文藝論의 民族을爲한藝術觀을窺知할수잇다

그러면 그들의藝術이 우리들의民族意識에奉仕하며『그것을再生産』ㅡ(梁柱東氏所論)ㅡ한다는것이 由來로부터 固執하든 藝術至上主義者들의享樂道具로서의藝術的任務와는얼마만큼 相異하며또한엇더한節制와規範이必要하엿든가?

▽……그들의 對答은 이것을 對照하야업시곳形式問題에다러잇다 가령말하면 軍人과勞働者가 가튼人間이라하며 軍服과勞働服이 同一한衣服이라할지라도 이衣服製作者와이製作을 命令한사람은軍人과勞働者를는然當한實務를생각하지안코衣服形成을『프란』할수업는것이나 同一한論證에서한民族意識과××意識의再生産或은그의奉仕할사람으로서 藝術品이엇더한任務까지할수잇다는 아모러한規範도업시 形式論에 直行或은 飛躍하게되엿슴은 엇더한辯證法의法則인지모르겟다 다만梁柱東氏의所論에서 보면ㅡ『諸氏의푸로文學觀ㅡ(푸로文藝의任務ㅡ朴)은 아즉도 素朴한見解로서『社會運動宣傳포스터』로서의푸로文藝라는命題를把握하고잇는모양이오(中略ㅡ朴)近限的實用主義의文學인것은不問可知이다僭言하자면

▽……諸氏의 文藝運動은 푸로레타리아의運動(即社會××)의『道具』로서 그一實的任務를다하는것이 全的目標인모양인즉 文學으로서의 成立이나完成가튼것은 차라리關心外에屬한듯하다ㅡ(梁柱東)ㅡ 『그런데重要한問題인『社會思想의 文藝的再生産』에는着眼치안코……(梁柱東)ㅡ

氏等의 이題目에關한引用은 이것으로서 滿足하자ㅡ 이 階級的民族文學의 任務는 우리가 簡短히闡明할수잇는것이다 上論을 要約하면口實만으로는『朝鮮民族의 當面한任務라고』떠단한現實的實踐的 實用的ㅡ(梁柱東氏여 놀라지말라?)ㅡ急務를 喝破하면서 그實인則 文藝作品의 社會的機能을 無視하고그 効用의積極的進展의範圍를 默殺하엿스며『武器』로서의

△……藝術的 機能을非難하며한 階級의ㅡ(氏의見地로하면 한民族)ㅡ文化가 實用的이되여서는 안이된다고 命令하엿다 그런다면 實傳만은『階級的民族』文學이며 그實은 所謂藝術至上主義者나 純粹藝術派ㅡ(부르조와藝術派)ㅡ의作品에 對한見解와 조금도相異한點이 업슴은 勿論이오 오히려『藝術』은 感情을組織한다고하는 階級의 理解는 薄弱한것이안인가?만일氏等의말과갓치 氏等의『階級的民族文學』이 그리고階級的民族意識이『朝鮮民族의 當面한任務』라하며 아울리 이當面한任務로서 藝術이 必要한것이라면 이것은반드시『武器』가되지안흐면안이된다 光輝잇는 칼날은劍의銳利함을表現할뿐만아니라 또한『光輝』에 對한 美感에부드치게된다

▽……『武器』란다면 氏等은 生美意識의消滅을엽새는듯이 각하나 決코 그런것이안이며 그러타면 氏等의常識은疑心을 밧지안으면안이된다 如何間氏等이 朝鮮民族의 當面한任務로서階級的民族文學을 主唱한다면 엇시해서 藝術의『武器』的 機能을闡明치못하엿는가? 그럼으로 決局 結論은 虛構級的民族文學이라는것이 藝術至上主義의 이文藝論은바에不過한것뿐만이안이라 그들의로곳 석근조아藝術 그것이다 그리고 氏等은『宣傳』이니『道具』니 하는것을그야말로 氏等의先覺보다도 더 憎惡하는것은 이退嬰思想에近한것이다 이世上에는 사람보다 더貴한것이업스며 人間의 生活보다 더問題될것이업다모든것은 이『生活』로부터 始作하는것이다 아모리偉大한藝術品이라할지라도

▽……人生을 爲해서만 創造되엿는것이 事實이니 이것이우리들의『武器』라고『道具』라고 或은『手段』이라고해서 決코 不名譽될것은 업는것이다 아모리 貴重하다는『紅寶石』일지라도 사람의 使用價値에잇서서만 交換價値가問題된다 사람에게 不必要하다면 社會的으로 價値를決定할必要가업는것이다 오히려 모든藝術은少數者가안이라 大多數民衆의(그生活가운데)ㅡ『武器』와『道具』로서 奉仕하게될때에 비로소 藝術의光輝잇는 任務를 遂行하엿다고 자랑할것이다 一文學靑年이『알릐와세프』의『사ㅡ닌』을 읽고 그 肉慾的 性慾的 健淸的 藝術品의 影響으로서『自殺行爲』ㅡ오나니슴ㅡ를取行하엿스며 그 性格에까지 影響이 잇섯다고 하자 또그리고『톨스토이』를愛讀하는 一人道主義者와 한宗敎家를생각하자

▽……肉情的 感情의感染ㅡ(組織)ㅡ宗敎的人生觀의感染 宣傳ㅡ(組織)ㅡ을 엇더케 우리는拒否할수잇스랴?이것이우리들의『武器』가되는것이무엇이不可能하며 무슨不名譽가 잇슬것이랴! 이럼으로서 氏等은, 風船球의上昇性의厚因을 모르고, 그양 한울로올라가라것을 유쾌하게 작란하는 正初의兒童모양으로, 藝術의現象만을說明하려하며, 藝術의本質과機能問題에 잇서서는 더支離한論題를 重疊하고십지안타。

봄이오면
何山 佳作

또다시 봄이와서
써어진落葉속으로새엄이날며
山에 들에 아지랑이끼여
종달새소리 아룽지울때

나는 뒤人山에 오르것노라
캐묵은꿈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을 우러大地를굽어
새魂과 새힘을 써더보것네

中國新詩槪觀 (四)
丁來東

▽……△ 우리 나라에서도 흔히읽는『勸君一杯君莫辭 勸君兩杯君莫疑……』等이라지 그의『村夜』가튼詩即『霜草蒼蒼蟲切切 村南村北行人絶 獨出前門望野田 月明蕎麥花如雪』等은다白話詩의조혼例요 또한白居易의 親友인元稹 劉禹錫의詩라지樂府等에서도 만흔白話詩를어더볼수잇다

▽……△ 晩唐에일으러서는 白話詩에 反對하는詩人即李商隱 溫庭筠等이잇서스나 그러함에도不拘하고 杜牧의詩라지 韓谷 杜荀鶴 羅隱等의詩에서는 더만흔白話를發見할수잇다 以下에 此等몃首을抄하여보것다

自恨尋芳到己遲 往年曾見未開時 如今風擺花狼籍 綠葉成陰子滿枝(杜牧歎花)

江郡人稀便是村 踏靑天氣欲黃昏 春愁不破還成醉 衣上淚痕和酒痕(韓谷寂寞)

得即高歌失即休 多愁多恨亦悠悠 今朝有酒今朝醉 明日愁來明日愁(羅隱自遣)

我住在村鄕 無爺亦無娘 無名無姓第 人喚作張王 並無人敎我 貧賤也詩常 自憐心的實 堅固等金剛(無名詩人作)

▽……△ 晩唐五代의詞에서도 白話가만히씨여잇섯다 詞의形式이五言七言과가티 規定잇는것이아니요 長短句로成立된것임으로 白話를그대로쓰기에容易한外닭이것다 詞는樂府의一種變體이다 樂府는本來소리를내어서노래하게된것인데 後에일으러서漸漸노래로불으지못하게되엿다 그래서樂府中에서 노래하게된것만은『詞』라고하게되엿다詞는白話韻文의進展할自然의길이여서 宋의詞라던 元의曲이라던지 現代의白話詩라지가 다가튼趨勢로進展하야가는것이다여긔서詞의例를 一二를어보것다

▽……△ 昨夜夜半 枕上分明夢見 語多時 依舊桃花面 頻低柳葉眉 半羞還半喜 欲去又依依 覺來知是夢 不勝悲 (前蜀韋莊 女冠子)

一去又乖期信 春盡! 滿院長莓苔 手挼裙帶獨裴回 來麼來? 來麼來? (後蜀顧敻 荷葉杯)

紅滿枝 綠滿枝 宿雨厭厭睡起遲 閑庭花影移 憶歸期 數歸期 夢見雖多相見稀 相逢知幾時? (南唐 馮延己 長相思)

春日宴 綠酒一杯歌一遍 再拜陳三願 一願郎君千歲 二願妾身長健 三願如同梁上燕 歲歲長相見(同上薄命女)

▽……△ 다음에는 北宋南宋約百六七十年의文學을살펴보자 이때에는學校가設立되고 晩唐의濃艶을抑壓하다가 도리여反動을일으키여서 柳開 穆修 尹洙 石介等이騈儷文을反對하고 古文을復辟하야大成功을하고 歐陽修가나서 古文의宗師가되고 曾鞏 王安石 蘇軾 蘇轍 蘇洵等唐宋八大家中의六大家가一時에並出하야 古文의全盛時代를 일우엇다 그러함에도不拘하고 白話文學은繼續하야發展하엿섯다 白話詞는 이때에南北宋을通하야 極盛時代를일우고 白話詩亦南宋에서 조흔步調로 發達을하엿섯고 語錄의白話化文이 佛敎와가티發達하고 南宋에서白話小說까지 크게發展을하엿섯다 이때白話詩의健將은 邵雍이엿섯다 그의生男吟을一首를어서例를삼아보자

我今行年四十五 生男方始爲人父 鞠育敎誨誠在我 壽天賢愚繫于汝 我若壽命七十歲 眼前見汝二十五 我欲願汝成大賢 未知天意肯從否

▽……△ 다시그의無酒吟을보자

自從新法行 嘗苦樽無酒 每有賓朋至 盡日閑相守 必欲丐于人 交親自無有 必欲典衣買 焉得能長久

이때는또한哲學全盛의時代여서 詩에도哲理詩가만히잇섯다 그重要한 詩人을들면 梅堯臣 邵雍 歐陽修 王安石 蘇軾 黃庭堅 秦觀 張耒 晁補之 陳師道等인데 그러한詩人의詩에서도 白話詩를 만히볼수잇다 南宋에는 當時四大詩人 陸游 范成大 楊萬里 尤袤等이나서 有意無意中 만흔白話詩를지엇섯다 그作品을一二를어보면ㅡ

過得一日過一日 人間萬事不須嘆 鄰家幸可除芳鑑 紅葉何會笑白頭? (陸游 醉中信筆四之一)

靜看簷蛛結網低 無端妨礙小蟲飛 蜻蜓倒挂蜂兒窘 催喚山童爲解圍(范成大 秋日田園雜興十二之一)

一晴一雨路乾濕 半淡半濃山疊重 遠草平中見牛背 新秧疏處有人踪(楊萬里 過百家渡四之一)

▽……△ 兩宋의詞에일으러서는 詩보다도 더白話가만흐나 張復하야 一一히例를들지안코 그重要한 作家만列記하것다

北宋 楊億 晏殊 歐陽修 柳永 黃庭堅 蘇軾 秦觀
南宋 辛棄疾 陸游 劉過 劉克莊 吳文英

明日 (4)
韓水岩

방안에는 우숨소리가 끈치고 갑작이 조용해진다 란혜는한번 더차쳐다 무릅을집고내여다보는 이는 삼촌숙모엿다 칼큼가튼얼굴에는 마큼 권의웃음이것치고 무슨비밀이나 폭로된것처럼 매서운 표정이 떠올은다

『란혜냐 엇더케이러케방중에 왓느냐?』

삼촌숙모의말은쌀쌀하기짝이 업섯다 당장에 자긔네의흉을캐친복수를하는듯하엿다란혜는니어 무에라고 대답할줄을몰랏다 다만 원망과 괄용의눈으로숙모를바라보고잇슬뿐 이엇다 본래 숙모는 학교의 C선생으로잇다가 란혜를 잘알든터이엇다그러나 웨그런지 삼촌과결혼한후부터는 자긔를 죽하게로안대하는것갓지 안엇다 보통 녀자와 녀자새이에 가지는일종의外닭몰을 석겨십흔 품고잇는도시란혜에게는뵈이엇다그렐께마다란혜는 인생의 욕렬함을한탄하고하얏다 오늘밤도 그흥렬함이 나타낫이엇다

『래일 아츰에는오기 어려울것갓해서 오늘밤에 아주뵈입고갈까하구 왓습니다』

란혜는 간신히 한마되하얏다 아모리 괄용의눈으로본다하야도그도 녀자라 녀자가가지는용렬한마음을 면할수 업섯다다만 삼촌숙모라는 쿤리덕 관념이그것의폭발을 겨우겨우 막고잇슬뿐이엇다

그써에 삼촌이 짐무리든손을 멈며 란혜를 버어다본다언제나 그의얼골은 웃고잇섯다

『란혜왓느냐 어서들어오렴으나 우리는 짐무리노리고이러케 분주하다』

그러나 삼촌의 웃음은그장면을넘기랴써버린웃음이엇다그는자긔 안해의이번래덕심리의발로는쉽히지못하고다만방중에차자온족하냥의태도에감사하는웃음웃음이엇다란혜는삼촌의 그웃는얼골에서 눈을 옴기어숙모를바라보앗다 가느른 눈초리와졸롬은입은 궐녀의 부박한성격을긔테로 드리내는듯 하엿다 암만해도 삼촌의장래가 념려되엇다 더욱이 궐녀의봄미한과거를알고잇는란혜는삼촌을대할때마다 그것이무한히 념려되는것이엇다 동시에 아모것도알지못하고잇는삼촌이 말할수업시 가련하게 보이엇다

란혜는 그자리에 더서잇기를 원치안엇다 더잇슬사록 모욕을 당하는것만가타서마츰내얼골을 들어삼촌을 처다보며 마즈막인사를하엿다 궐녀의눈에서는 부지중눈물이 쏘다젓다 S선생을 작별할때 참앗든눈물이 마츰내 여긔서터진것이다 친족 이라고는삼촌하나잇든것이 래일 이역을떠나가고 혈혈단신으로 래일운동의선두에설것을생각하매외롭고의지할데업는설음이도수를일허버리고 터진것이엇다 삼촌은란혜의우는것을보고방에서나와족하냥을붓잡고 여러말로위로한다

『란혜야、울지마라부산 가서도편지하고횡빈가서도하고상항가서도편지하마……그리고너졸업한후에는미국으로공부오렴』

그러나란혜는 울대로 울엇다 궐녀의설음은 삼촌을떠남에 만잇는것이 안이엇다 갱생의 래일을 알고감격에넘쳐 우는것이엇다 그울음이야말로 희망에대한울음이오깃븜에대한울음이엇다

한참후에란혜는삼촌에게봇들리어대문밧外지나와서야겨우울음을멈첫다 궐녀의가슴에는새시래일의깃븜이 뛰놀고 잇섯다 웃음으로삼촌을작별하고궐녀는 쾌활한걸음으로긔숙사를향하야 재ㅂ싼발씨를내어노핫다

래일을두고서울의밤은고요히 깁허간다……(六)

謹賀新年

驪州

驪州邑內 雜貨紙物 우리商店

驪州郡廳職員一同
驪州郡農會職員一同
驪州郡森林保護組合職員一同
驪州郡畜産同業組合職員一同

驪州邑內弘門里 五星自動車部 主 崔基錸

驪州邑內 驪州釀造組合

驪州邑內上里 內外金物 總ゴム品 李鏞儀商店

京城地方法院驪州支廳執達吏職務取扱 小川藤太郎

驪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芳林園 電話二七番

驪州郡邑內上里 李重熏

驪州邑內上里 司法代書人 峯留喜

驪州邑內弘門里 驪州旅館 主 朴廷植 電話三五番

驪州邑內 石寅台

驪州邑內上里 各國自轉車及附屬品商 東興自轉車店

北內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驪州邑內堂隅里 北內面長 曹錫永

驪州郡北內面石隅里 黃北釀造組合 理事 李達永

驪州郡北內面堂隅里一五三 堂隅釀造場

驪州郡北內面堂隅里 趙根洙

驪州邑內倉里 金鍾國

驪州邑內弘門里 衡平社驪州支部

安邊

有力者 姜呂淳

有志 金冕會

有志 金珣榮

安邊酒米改良組合長 李炳宰

東海北部線安邊驛前 運送業 金自能

大瓦里 特約肥料 賣買業 金溶訥

姜呂弼

姜允昊

面會計員 徐鼎河

姜允植

面書記 金鳳榮

面書記 金鴻洹

有志 金秉烈

安邊郡廳

安邊自動車部 主 金炳壎

安邊邑內信行旅館 吳基贊

邑內 安邊旅館主 申宇燮

安邊邑內 金銀細工 美術彫刻 時計修繕 寫眞撮影 正信堂 主 李□徽

安邊邑內 綢緞布木 紙物酒類 日用雜貨 販賣商店 主 金潤基

有力者 姜根弼

文成鎬

安邊公立普通學校

邑內 米穀雜穀 安龍商店 主 朴龍淳 朴龍□

邑內 信元商店 主 朴元益

鶴城釀酒所

司法代書人 岸辯治

有志 李奎錫

平壤炳京商會安邊支店主 鮮于□

安邊水利組合長 李鍾林

崔贊植

黃相八

司法代書人 申容澈

金台杓

司法代書人 黃鎔律

司法代書人 金百卿

鄂山陵溪泉酒支店 金基柱

朴昇昊

醴泉

醴泉邑內 慶一銀行醴泉支店

醴泉郡龍門面 朴魯鑽

醴泉驛前 元豊商會

醴泉邑 醴泉穀物組合

醴泉邑高等理髮館 張石九

醴泉郡甘泉面 金泳東

醴泉郡 道評議員 張基生

醴泉邑內 安成鎬

醴泉郡上里面沙谷洞 朴寅明

醴泉邑內 乾材藥局 蔡漢祚

醴泉邑內 普生醫院 醫師 石樫

醴泉郡上里面所 面長 書記 森林技手補

醴泉郡下里面所 職員一同

醴泉郡龍門面上金谷洞 醴泉淡藥 寧神丸 新眼水 製造本舖 日新堂藥房 主任 梁德洙

醴泉郡龍門面事務所 面長 書記 森林技手補

醴泉邑內 醴泉酒造株式會社

醴泉邑內 金炫鐘

安東郡臨北面 李鉉禹

醴泉郡普門面畜産業組合 理事 李膺鉉

醴泉郡知保面 金龍鎭

醴泉郡知保面 全相朝

醴泉郡 龍門酒造組合 上里酒造組合

醴泉郡 官公吏一同

醴泉郡知保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醴泉郡知保面酒造組合

醴泉邑內永泉商會 黃□□

醴泉邑內 李子軒

醴泉邑內京南堂時計店 安相英

醴泉郡知保面駐在所 職員一同

醴泉郡虎鳴面事務所 面長 李中寧 書記 李炳根

東萊

慶南東萊郡東萊面壽安洞 永建精米所 電話一一一番

東萊郡東萊面壽安洞 東萊事務璇合

東萊郡北面 梵魚寺住持 金擎山 電話四二番

東萊郡東萊面壽安洞 中央タクシー 電話一〇五番

東萊郡東萊面壽安洞 東萊自働車部 電話一二三・一二四番

東萊邑南門通 東萊洋靴店

東萊邑城內 洋服店

東萊邑西門通 三七洋服店

東萊邑城內 竹屋洋服店

東萊城內 東萊布敎堂 東萊悉達夜學校 東萊幼稚園 電話三五番

東萊郡日光面三聖里 金陽釀酒場 主 金洪□

東萊郡機張面大邊里 釀造場 金洙鳳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龜浦支店

東萊郡長安面佐川里 東光商會

東萊城內 大同精米所

東萊城內 朴茂永

東萊城內 面協議員 林炳弘

東萊城內 請負業 田贊玉

東萊郡沙下面新平里 朴相璇

東萊郡南面 金化壽

東萊郡日光面 尹圭錫

東萊郡機張面大邊里 朴孟杓

東萊郡機張面大邊里 朴容寬

東萊郡東萊面 趙敬述

茂朱

雲川面事務所 面長 宋□□ 書記 李元□ 同 朴東□ 同 李容□ 同 權正□ 同 李泳□

茂朱郡邑內 金大中

茂朱邑內 自働車練習所

赤裳面長 全正鎬

茂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赤裳面三柳里 柳東烈

茂朱郡邑內 李鍾鉉

茂朱面吾山里 權容斌

茂朱郡邑內 茂昌洋服店 金廷均

茂朱郡邑內 金東燮

茂朱郡邑內 朴□徹

茂朱邑內 金□□

茂朱郡邑內 吳□根

茂朱郡邑內 陳□鎬

茂朱郡邑內 陳再基

敎員 朴海濟 李點浚

茂朱郡雪川面所川里 姜一善

茂朱郡赤裳面 李用錫

茂朱郡赤裳面三柳里 柳培鉉

赤裳面檢山里 崔錫善

茂朱郡茂豊面 朴來龍

崔鶴準

茂朱郡邑內 文昌根

茂朱金曜會

謹賀新年

金泉

金泉郡甘川面 面長 朴耆用 外職員一同

金泉郡農所面新村 李鍾鐸

金泉郡南面 面長 林鍾洙 外職員一同

金泉郡農所面 職員一同

金泉郡助馬面 面長 金敬淳 外職員一同

金泉郡甘川面光德洞 穀物精米所 李潤洙 支店 助馬面新安洞

金泉郡知禮面上部里 文弼坤

金泉郡助馬面新旺洞 酒造所 李鳳現

金泉郡甘川面光基洞 張溶熙

金泉郡甘川面光基洞 李聖祚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永馥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煥敏

日用雜貨化粧品洋服附屬品具備 メリヤス學用品薄利多賣主義 金泉消費組合

金泉旭町 永和商業株式會社 社長 裵庚潤 專務 金聖文

聞慶郡山北面大上里 潤山春酒 朝鮮酒 釀造組合 主 金東淑

金泉郡甑山面 職員一同

金泉郡大德面 面職員一同

金泉旭町 貿易商 金琪振商店 長電話一二三番 一七〇番

金泉南山町 中興洋服店 主 朴富瑛 技師 白璞寅

金泉城內町 明月館 主 金德守

金泉城內町 長春館 主 金炳球 電話一六五番

金泉本町 金泉酒造株式會社

金泉南山町 金陵理髮館 主 崔昌萬 理髮師 李傀壽(?)

金泉郡果谷面 面長 呂舜東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煥道

金泉郡石峴面 石井酒造場

京釜線大新驛前 穀物貿易 輸入石油 肥料雜貨 委託販賣 運送店 主 朴壽俊

金泉郡 牙浦面事務所

金泉理學療法南鮮治療院 生理學士 治療士 金泰勳

各種自轉車並附屬品 改良用具 食用豆油 吳永祚 自轉車店 電話三一番 振京七七〇六番

慶北金泉黃金町 穀物牛皮貿易 李俊業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安泳駿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文東休

金泉南山町 金泳熙

金泉錦町 朴中煥菓子店

金泉本町 面協議員 趙熙甲

金泉本町一一七 乾材藥房 主 成德根

金泉 陳成玉

龍宮釀造組合 權五明 權五德

龍宮面職員一同

金泉郡助馬面江南洞 學校評議員 金敎元

金泉郡代項面 穀物商 三興商會 金鍾九 李中鎬(?) 金基演(?)

金泉代項面 職員一同

金泉郡鳳山面 面長 崔健鎬 外職員一同

金泉郡求禮面 面長 全在深 外職員一同

金泉郡果谷面陽角洞 崔在燦

金泉郡大德面舘基里 酒造所 朴桂浩

本籍金泉郡釜項面柳村里 現住大邱達城町 理髮業 劉水聖

金泉郡釜項面月谷里 文公烈

金泉郡甘川面陽川洞 胞胎帶下 梅毒藥專賣 景一院藥房 主 崔在鶴 胞胎不能=二圓以內服藥則生男 生女赤白帶下=十圓以下服藥則 年久한것이라도完治

金泉本町 輸入貿易商 井上商店本店 電話一三九番 木材部 電話一八番 貿易部 電話一六七番

金泉郡各面囑託 測量士 金東一 事務員 金炳鍋(?) 金泉南山町八ノ三番地 精測量事務所

金泉郡農所面月谷洞 金鍾基

金泉郡南面玉山洞 姜陽根

金泉郡南面玉山洞 崔在鳳

金泉郡開寧 酒造場 尹源直

京釜線大新驛前 運送店 主 金煥鶴

金泉面長 笹猪之助

金泉郡改良麴子組合 電話二一七番

金泉旭町 信行商會

金泉旭町 金昌商會 電話一七五番

金泉南山町 呂煥玉

金泉郡知禮面大栗里 李擇柱

金泉郡知禮面大栗里 朴仁培

金泉郡果谷面 申道浩

金泉郡釜項面魚田里 玄在根

金泉郡釜項面魚田里 文小岩

金泉郡釜項面月谷里 李性老

金泉郡石峴面上院里 李年和

金泉郡石峴面上院里 李庚永

金泉郡石峴面白魚里 姜武京

金泉郡石峴面作乃里 林龍出

金泉郡石峴面作乃里 林鳳春

金泉郡石峴面作乃里 林釆岩

金泉郡知禮面上部里 崔漢國

金泉郡知禮面上部里 金已宰

金泉郡知禮面大栗里 金仁洙

金泉郡甑山面黃亭里 柳南基(?)

金泉大德駐在所 權在度

金泉郡知禮駐在所 孫琴(?) 主

金泉郡鳳山面信洞 精米所 趙永基

金泉郡果谷面陽角洞 崔在鎬

京釜線金泉本町 東元商店 主 白判述 靴皮靴底改良靴 ゴム底運動靴 各種靴製造所 各原料附屬品 及粉販賣部 振替釜山四一三九番 電話(二四)

各種自轉車及附屬品一式 徐相奎

龍宮面邑部里 全武學

龍宮面邑部里 龍宮青年會

金泉南山町二一番地 司法代書人 韓彰錫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李漢駿 電話四三番

004453

朝鮮漁業株式會社 龍宮出張所 嚴翼峻

金泉黃金町 文基永

聞北慶運送株式會社 龍宮出張所 金在淵

龍宮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山陽酒造組合 高永秀

聞慶郡山北面 面長 蔡匡鎭

龍宮郵便所長 片山彌一

金泉郡鳳山面信洞 朴宗根

金泉郡釜項面下巴里 兪壽仁

金泉郡釜項面魚田里 玄昭文

金泉郡釜項面柳村里 李範洵

金泉郡石峴面上院里 李鳳永

金泉郡石峴面下院里 金永祚

金泉郡石峴面釆所里 宋泰憲

金泉郡知禮面上部里 金今石

金泉郡知禮面上部里 金八宰

金泉郡知禮面大栗里 區長 朴鍾華

金泉郡知禮面大栗里 崔琴珠

金泉南山町 回生醫院 金鍾鎬 電話三〇〇番

金泉城內町 生ソバ 御料理 大盛庵 電話一一九

金泉郡鳳山面 太和洞酒造場 鄭雲洛

金泉郡鳳山面禮智洞 吳漢根

金泉錦町 이해박는집 齒科 金庚七

金泉城內町二一八ノ三 城內旅館 主 鄭永道

金泉郡牙川面 素麵肥料商 金海俊

金泉郡知禮面大栗里 朴八介

金泉郡知禮面市場 李之永

金泉郡大德面中山里 文箕鉉

金泉黃金町 穀物精米 信昌商會 鄭揚漢 成致永 材

金泉郡鳳山面仁洞 鄭東基

金泉郡代項面德田洞 鄭雲鎔

金泉郡牙川面中旺洞 徐正植

京釜線金泉驛前 ㊂丸三運送店 店主 安昌鎬 電話 本店二五九番 構內二〇二 振替釜山四六五九

金泉郡牙川面中旺洞 穀物商 李應熙

金泉郡甑陵面 面長 白樂燉

金泉黃岩寺 住持 金大雲

金泉本町 綢緞布木直輸入商 東亞商店 主 金鍾鎬 專務 金鍾圭 店員 金占用

金泉郡鳳山面信洞 起生醫院 院長 金兌起

京釜線金泉本町一二二 韓國鉉商店 綢緞布木 毛物各種 新舊鞋靴 襪子 製衣具備 電話二一四番

金泉郡南山町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尹昌漢

金泉錦町 最新式流行洋服 三一洋服店 主 鄭聽出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大邱支部長 鄭寅奎 外支部一同

金泉開寧東部洞 禹沂植

金泉郡農所面延明洞 篤志家 金炯淑

金泉郡開寧面東部洞 裵鍾燮

金泉南山町 金玉培

金泉郡開寧面西部洞 洪鍾九

金泉大和町 大和旅館 主 韓在五 電話一三八番

金泉錦町 大興洋襪所 主 林正淳

金泉南山町 朴台用

金泉城內町 太平館 主 羅泰汝 電話二一五番

金泉城內町 高等理髮館 主 朴斌著 理髮師 金潤振

慶北金泉開寧 裵永基

金泉黃金町 米穀雜貨 素麵棉花 燒酒販賣 應受商店 主 具元弼

金〇南山町九ノ五 李鉉澍

金泉郡釜項面 職員一同

金泉郡知禮面 職員一同

金泉郡石峴面 職員一同

金泉黃金町三八 信興商店 鄭舜逸

金泉郡鳳山面 濁酒、藥酒、燒酒 鳳溪酒造所 主 曹相夏 白
本所는設置以來此業에經驗이豐富하고釀造技術이老練된技術師를招聘하여서專혀善味改良에努力하던바이며隣近實用家及販賣業者의好評이藉藉함으로外處의注文이殺到함으로業務日昌하오니此機에四海諸位는一次試飲하시옵소서

金泉警察署員一同

金泉金曜會

永同郡上村面柳谷里 權五釆

金泉郡釜項面斗山里 面協議員 學校評議員 朴丁夏

金泉郡助馬面新安洞 宋在洙

京釜線金泉驛前 承認 (泉) 金泉合同 運送株式會社 電話一二四番 私書函一二號

金泉本町 金陵印刷所 主 黃義弼 電話一三七番

金泉郡廳員一同

金泉郡谷松面 面長 趙鳳來 外職員一同

報酬減下로 運轉手盟罷

월륙십원식주든것을 삼십원으로감함으로

江原道淮陽에서

강원도회양군읍내서촌자동차부(江原道淮陽郡邑內 西村自動車部)운전수네사람은 지난일일에 돌연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는데 이제자세한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고주서촌창조(西村滄助)는동래에 운전수의월급을 륙십원식 지출하든것을 지금에 이르러서(多期中)매인에게삼십원식밧게 지출할수업다고 함으로 운전수들은 삼십원으로는도저히 생활비에도 부족하니월사십원식을달라고 간청하엿스나 고주는 경비부족이니 엇지할수업다하야 드듸어 동맹파업을단행하엿다는데 이로말미아마 회양에교통기관으로 오직하나인 이자동차부가 일일부터 운전을중지하엿슴으로 이로인하야 우편물은 인마로운반하나 한로동안식혀연되어 일반군민에게 막대한영향이 잇슴으로 고주의무책임함과 무리함에 일반의여론이 비등하며 사건결말을 주목중이라더라

生活할수업서 不得已罷業

운전수의말

별항파업문제에대하야운전수모씨는 자못흥분한태도로 말하되 고주의경비부족이란것은핑계입니다 다만은 매월륙십원식 밧다가 삼십원식 감봉하니 이것으로는 우리생활비나됩니까 그리하야 지난삼십일밤에 열사십원식이나를려고간청하여보앗스나 고주측에서는 전연거절함으로 우리는 부득이동맹파업을한것이외다하더라

雇主의無理에 沈默할수업다

지방유지의말

별항사건에대하야지방유지모씨는말하기를 자동차부고주가폭리를취함은 전부터 잘알고잇섯스나 지금에와서 그무리한것이 군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되어문제가커서 침묵할수는 업습니다 만약에로라도 속히운전을 개시치아니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속히해결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하더라(회양)

新幹明川支會 대회소집

신간회명천지회(新幹會明川支會)에서는 별항보도와가티 지난달이십사일에 집행위원회를 열고대회일정을 일월 삼칠일과 삼일량일간으로하고장소는아간공회당(阿間公會堂)으로결정하엿다는데 그준비위원으로 아래의오인을 선정 하엿다더라(명천)

◇準備委員 太日福 李根榮 李鵬洙 千明洙 許鈴

新幹會設置禁止

時期尙早라고

신아산경찰서에서 聯合會는抗議文提出

신간회함경남도지회련합회(新幹會咸南道支會聯合會)에서는 작년십이월이십팔일에대회를 소집하고 조직구역에 지회를설치하기위하야 정평군 설치축청위원으로 맹강재(孟性在)리희면(李熙冕)량씨를 선정하야 지회설치준비로 특파중 정평에서는한금시흥령하엿기때문에 일반사회단체에서는 신아산 경찰의무리를 비난한다는데 그탐지한바에의하면 신아산 지회설치는아직시기상조라는 구실로서 금지하엿는데 련합회에서는 그대책을강구한결과 위선 음파가튼항의문(抗議文)을발송하얏다더라(정평)

◇抗議文

新幹會는朝鮮二千萬民族의死活問題를解決하는共同鬪爭機關으로存在하엿슴은內外가周知하는바이다 創立三個年에벌서百三十八個所의支會를設置하엿고또設置하려다가 못한곳이업는것은過去의事實로써證明하는바 금번新幹會新阿支會設置를貴下가絶對禁止함은沒理錯覺이其極에達하엿스며 살려고하는朝鮮民族으로하여금死滅에陷케하는行動이라認하고此를抗議함

古津靑年例會

의주군고진면에잇는 고진청년회(古津靑年會)에서는 지난이십팔일오후세시삼십분부터 고진면 사무소내에서김명희(金明熙)씨의사회로 동상례회를 개최하고 좌긔사항을토의한후 동나시 삼십분에폐회하엿다더라(의주)

◇討議事項

一、講演會開催의件
一、農民夜學後援의件
一、其他事項

雲田農民夜學

정의선운전역(京義線雲田驛)부근에잇는 운전동(雲田洞)은 인구와 산업으로보아다른지방에손색이업스나 다만 한가지 일반이유감으로생각하는 바는농민과 무산아동을교양할만한교육기관이업는것임으로 지난십이월 십일에유지석명엽(石明燁)권한복(田贊福)외제씨의발기로 운전농민야학회를개최하고 농민과 무산아동을 모아교수하는중이라더라(정주)

忘年會하는데 屆出업다고 량씨를검속

전남순천군(全南順天郡)각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삼십일일오후두시경에 순천농민조합 회관(順天農民組合會館)에모히어서 일품회(一品會)의형식으로 망년회(忘年會)를하게되엿는데 순천경찰(順天警察)은돌연히 로동련합회위원장(勞働聯合會 委員長)리창수(李昌洙)씨와 청년동맹위원(靑年同盟委員)정[illegible](鄭[illegible])씨를 검속하엿는데 리유는계출업는집회를한다함이라더라(순천)

東山學院의 維持會組織

지난삼십일밤칠시부터 시외동산학원(東山學院)안에서 유지십여인이 모히여 민영뢰(閔泳雷)씨사회로 동학원 유지책(學院維持策)을토의하다가 동산학원유지회(東山學院維持會)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즉석에서 다음과가티임원(任員)을선거하엿다더라

會長李秉儀 庶務部長崔觀根 部員閔泳雷 金甲錫 財務部長朴承浩 部員趙鎭珣 申己淑

◇役員會에서任員選擧

그 날밤엇시부터 역원회를 개최하고 여러가지사항을 협의하얏스나 학원사정으로인하야 역원개선을결정하고 다음과가티 선정하엿다더라

院長閔泳雷 庶務李秉儀 會計朴承浩 學監金甲錫

海州新幹支會 대회를금지

지난 이십칠일 신간회해주지회(新幹會海州支會)에서는 제사회정기대회를 해주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하려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개회당일인 이십칠일아침 해주 경찰서에서 대회준비위원을 동서로 호출하야 금번대회는 불허가하겟다 그외여러 가지 관계상 이번회합은도저히 허락할수업다는말을발하고 동집회를 금지식히고 말엇다더라(해주)

賭博에돈일코 忿김에食刀亂刺

돈만먹고노름안한다고 상대자를찔러상케하고

犯人은即時逃走潛跡

전남장성군 장성면단광리(全南長城郡長城面丹光里)김점수(金點洙)(二三)는지난 삼칠일오후세시경에 동리김룡덕(金龍德)(二三)에게 식도(食刀)로몸기를 찔리여 삼주일 가량이나 치료를바더야할상처를 입엇다는바 이제그자세한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김점수와 김룡덕은 지난십칠일에 동리박모(朴某)의집에서 도박을하다가 시하(侍下)에잇는관계로 매우염려하든중에 룡덕의누의가 와서 행형나 그뒤에자기들의 부모가와서 우중을혈가하야 뒤人산으로 도망하엿스나 그누의뒤에 사람이업슴을 알고다시 도박을 계속하자는데 그만하면조켓다는 서로 말하는데 전과동년은 주인집으로 부터식도를 가지고와서 돈은따먹고노름은안할진대 칼로 찔러죽인다하고 덤비어들어서 점수를 업허트리고 좌우둔부(臀部)를 찔러 넘어트리고 목을찔르려할 으로 놀라며 발고겨우 죽엄을면하엿다는데 피해자의부모는 분함을 참지못하야 고소(告訴)를 제기하려한다하며 범인은 그날로종적을 감초아버리고 업슴으로 경찰은극력 수사중이라더라(장성)

◇丑山漁組 新築落成◇

영덕군축산면축산동(盈德郡丑山面丑山洞)에잇는 축산어업조합(丑山漁業組合)에서는 설립이래 사무실이협착하야 제반사무에지장이 만허서 다시신축(新築)하기로결정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동조합에서는 백여평부지(敷地)에륙천여원공비로 목제이층(木製二層)으로 구월중순 부터 공사한바 해조합직원들이 열심감독한 결과 십이월초에 준공되어 동월중순경부터는 사무를 신축사무소에서 본다는바 이번 공동판매장(共同販賣場)까지잇서 일반조합원의 편리는물론이어니와 주민일반도 이러한건물이 신축됨에 대단히깃버한다는바 락성식(落成式)은명춘에하리라더라(영덕)

◇自動車往復回數增加

고창읍내(高敞邑內)에잇는고창자동차부에서는 지난 이십륙일부터 무장(茂長)간왕복일회를늘이엇다는바 고창발시간은 오후네시로 하로 삼회로서 일층편리하게 되엇다더라(고창)

暴風雨로 船夫四名이遭難

경상북도영덕군해에서

【一名溺死、三名救助】

경북 영덕군강구항(盈德郡江口港)에서는 원적을경남통영군산양면 당동리(統營郡山陽面堂洞里)에둔 장문일(張文一)의 소유어선(漁船)이풍랑을만나 지난달이십칠일하오일시경에 파선되어 승조원(乘組員)네사람중 본적을 경남울산군 대현면선암동(蔚山郡大峴面仙岩洞)에둔 박금두(朴[illegible])(二〇)는현장에서익사(溺死)하고 나머지 세사람은겨우 헤엄처다른배의 구조로생명은 무관 하다는바 전긔 장문일의 어선은 얼마전에 강원도 삼척군해안(江原道三陟郡海岸)에서 정어리(鰮魚)를잡다가 지난 이십칠일경에 그곳을 떠나본적지로향하든도중에 폭풍랑(暴風浪)맛나 도저히행선할수업슴으로 강구항에입항하라다가 륙지에약이해리(海浬)되는바다에서 파선된것인바 손해는대략 삼백여원에달한다더라(영덕)

盈德新幹支會 대회연긔

경북영덕읍(盈德邑)에위치를둔 신간회 영덕지회에서는 본월사일에정긔대회를 소집 하려고준비하든중 경찰당국 에서책임위원을 소환하야 말하기를 경찰부의방침이니 대회를 연긔하라함으로 부득이연긔하기로되엿다더라(영덕)

사람毆打하고 돈外지强奪한者

네名을檢擧取調

일원일일평양서에서

지난일일 오후세시경 대동군림원면소오리(大同郡林元面小五里)일백사십오번지 리군외(李君化)(三六)라는사람은 평양본정(本町)어구를지나다가 봉의에 술먹은무뢰한사명에게 봉변한행적을 당하야 매를죽도록맛고 난후보니 돈지갑의소유금 십원이 간곳이업서 그사실을 평양경찰서에 고발한결과 그들은전부체포하야 조사하여본바 파면그런 일을하엿다고 자백한일이 잇다 그들은 평양교구정(橋口町)십이번지 김복만(金福萬)(三三)과 행뎡(幸町)삼십륙번디 조태현(趙泰賢)(三六)과 대동군추을미면사동(秋乙美面寺洞)삼백칠십구번지 리동휘(李東輝)(二三)과 교구정십구번지 김승일(金承一)(二二)로 황금정(黃金町)모음식점에서 술을먹고 도라오든중 길의장소에서 그디케 차홍하는 일면 그런행위를 감행한사실로 방금그경찰서에서는 엄중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평양)

讀者寫眞割引

정주지국에서

본보정주지국에서는정주사진관(定州寫眞館)에교섭하야십이월이십칠일부터 명년일월륙일까지 조선일보 독자에 한하야사진 촬영요금을 사할인하게되엿다는데 사진관 주인되는 조메묵씨는다년간 사진업에 종사하야 사계에명성이놉다하며 일반 독자는 이기회를리용하기를바란다더라(정주)

新年劈頭 始興에强盜出現

의복과금품을탈취도주

永登浦署嫌疑者檢擧

지난삼십일밤에 시흥군동면 청련암(始興郡東面靑蓮庵)에 흉기를가진 강도두명이 들어와서 그절에서 자든 주지박룡봉(朴龍鳳)을 에어노코 협박한후에 현금사원과 양산한개와 의복여섯가지를가지고 유유히 자최를감추어버렷다는데 신년벽두에 이급보를들은 소관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서는 사법계주임이하 형사다수가 범인테포에 극력활동하야 혐의자로 오희명(吳熙明)의 수명을 동서로 인치하는 동시에 취조를하는중이라는데 범인은아즉 자최가 묘연하다더라(시흥)

平壤에 强盜出現

이원오십전을 강탈해가지고도주

작년말경계가 퍽심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지난삼십일 평양에는 강도사건이또한 발생하엿다 오후열시반 교구뎡(橋口町)십이번지 김병희(金炳熙)(三七)의집에 그의처곽씨(郭氏)만자고잇는틈을타서 뒤동을넘어라고 협박한결과 그의 소유금이원 오십전을 강탈하여 가지고 어듸로도주 하여버렷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방금 범인체포에 로력하는중이라더라(평양)

◇天道東京講道會

천도교동경종리원(天道敎東京宗理院)에서는 동양에 처음되는 신임원장조긔간(新任院長趙基栞)씨의부임과동시에 신년 일월이일부터십일동안 강도회(講道會)를개최할터인바 강사로는 리돈화(李敦化)씨들 천도교철학(天道敎哲學)을 강의한다는데 일반의청강도 환영한다더라

明星學院同窓會

지난이십오일오후칠시에 라남명성녀자학원(羅南明星女子學院)에서는 졸업생제군들이 동창회 창립대회(同窓會創立大會)를 주인자(朱仁子)양의개회사로개최하엿다더라(라남)

◇任員 金妍子 南彩眞 崔貞元 姜玉順 吳英子 李妍淑 朱仁子 錦仁福

鏡靑羅支委員會

함북경성청년동맹 라남지부 에서는 지난이십일일 오후칠시부터 동회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엿다는데 당일토의사항은 여좌하다더라(라남)

一、執行委員補選의件
一、調査研究部編入의件
一、支部財政問題의件

經濟緊縮妥協

풍산군에서

함남풍산군에서는 지난이십오일에 강세진군수와 풍산경찰서장의명의로 각관공서장을 풍산군청에 청하야가지고 공사경제의긴축실행사항을 협정하고 실행하기로하엿다더라(풍산)

漁朱新幹支會 정긔대회

신간회어주지회(新幹會漁朱支會)에서는 제오회 정긔대회를 예정파가티 거이십삼일 오후일시반부터 동지회회관내에서 열엇는데 정각전부터 모혀드는군중은무려 천여명에달한 성황리에 위원장차영순(車榮淳)씨가개회사를한다음 서긔장 리도원(李道源)씨외개회사가잇슨후 제반사항을 결의하엿다더라(경성)

◇討議事項

一、運動方針樹立의件
一、本部會館建築負擔金에關한件
一、班確立의件
一、東拓移民反對의件
一、少年同盟集會禁止의件
一、咸興水組事件에關한件
一、沙目堰牛車組合支持의件
一、火田民에對한水砧稅反對의件
一、火田民救濟策에關한件
一、朝鮮米移入制限案反對의件
一、冠婚祭禮改革에關한件
一、三總集禁에關한件
一、在滿同胞迫害의件
一、小作人無償使役에關한件
一、學生盟休原因調査에關한件
一、支會區域問題에關한件
一、豫算遲延에關한件
一、朝鮮勞働者送還의件
一、鏡城罹災民救濟의件
一、車輛檢査及三寸車使用의件
一、山間民過重賦課의件
一、異端團體排擊에關한件
一、成人敎育講習會의件
一、不正賣買業者에關한件
一、鳳岡消組支持의件
一、太平洋會議에關한件
一、支會區域內經濟統計作成의件
一、斷食同盟事件에關한件
一、借家人同盟支持의件
一、鏡城道路修築의件

◇執行委員

委員長車榮淳 執行委員李圖遠 李漢洙 賈瓚煥 玄應俊 朴鼎洙 金昇南 嚴東熙 趙松碧 龍錫亨 嚴南洙 石璣邦 李鍾燮 李根遠 南春山 金聖振 裵承南 李基沅 徐東旭 李正德 南基鉉 嚴在燮 嚴昌燮 金武虎 李鍾翊 同鉄補 李春浩 崔奉男 許琫喆 李宗檜 南哲 檢査委員玄基台 李淳馥 述正德 林贊栢 曹友峰 代表會員李圖遠 金昇南 嚴東熙 李漢洙 賈瓚煥

崔德進君護送

함북경성군서흥동(咸北鏡城郡西興洞)에 본적을둔 경성고보(鏡城高普) 오년생 최덕진(崔德進)(二九)군은 지난이십오일에 동귀휴학을리용하야 귀향하엿든바 이십칠일오정에 돌연검속되어 이십칠일아침 자동차로 라남서에 호송되엿다는바 사건의 내용은 알수업다더라(온성)

穩少香棠支部 설치연긔

함북온성소년동맹향당지부(穩城少年同盟香棠支部) 설치대회를 지난이십사일에 개최하려하엿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 부득이 일월륙일로연긔하엿다더라(온성)

月餘霖雨로 麥凶難免

일반빈재민 생로도곤난

경남사천(慶南泗川)일대에는 지난오일부터 나리는비가 열여간오게됨으로 보리(麥)까지 흉년을 만나게되고 더한재가 극심하엿다는데 한해구제책으로 도로제방가타의 공사를시작하엿다는데 근일월개월간이나 비가나림으로 그노동품파리도 하지못하야 일반빈농의 생도가떠옥곤궁하여짐으로 하로한씨의 죽은 고사하고 초근목피로련명하여 간다는데 아즉비가개지 안흘모양임으로 런일이러케 비가오다면 모다 좌면사매(坐面死

謹賀新年

慶山

- 慶山郡邑內 安炳吉
- 慶山郡廳 職員一同
- 慶山郡慈仁面元堂洞 果樹改良實行組合長 李鐘漢
- 慶山郡慈仁 大同精米所 主任 洪海性
- 慶山郡慈仁 陽奉醫院 院長 李陽奉
- 慶山郡慈仁 金秉河
- 慶山郡龍城面 面長 金聖鎬
- 慶山郡龍城畜業組合 理事 金道壽
- 慶山郡南山面 面長 朴在順
- 慶山郡慈仁 石濟元
- 慶山郡慶山面 職員一同
- 慶山警察署署長 前田藤次郞
- 慶山郡邑內 活版石版 三友印刷所 主 崔亨度
- 慶山郡慈仁 黃珍洪
- 慶山郡慈仁公立普通學校長 中尾恭
- 慶山郡南山面安心洞 金相海
- 慶山郡慈仁 黃宙洪
- 慶山郡慈仁 鄭昌順
- 慶山郡慈仁金融組合 理事 弘重都雄
- 慶山慈仁 張在洙 ([illegible])
- 慶山郡慈仁 崔元五
- 慶山郡慈仁 邊永權
- 慶山郡慈仁 高卜伊

清安

- 清安面邑內里 李萬權
- 清安面邑內里 無名氏
- 清安面邑內里 紳士 朴憲令
- 清安驛前 新興理髮館
- 忠北線清安驛前 正午堂時計店 主 劉正烈
- 清安驛前 旅人宿 金月善
- 滿洲粟 精米用石粉 肥料各種 米穀 官鹽 清安驛前 崔平國商店
- 清安驛前 米穀商 朴寅東

錦山

- 曾坪面曾坪里 區長 朴奎根
- 曾坪面曾坪里 有志 楊貞錫
- 清安驛前 米穀商 張基漢
- 清安驛前 槐山郡曾坪面連岩里 安[illegible]
- 清安驛前 槐山青年同盟曾坪支局
- 全北錦山 金浩錫
- 全北錦山 崔在寬
- 錦山警察署 森川茂作
- 全北錦山 錦山郡廳職員一同
- 全北錦山 朝鮮不動産信托株式會社 事務取締役 全北道評議員 鄭炳鑛
- 全北錦山 錦溪醫院
- 全北錦山 院長 李鐘善 醫生 朴根東
- 全北錦山 錦山醫院
- 全北錦山 院長 李輔順 助手 金泓根
- 錦山面事務所 職員一同
- 全北錦山 錦山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 全北錦山 鄭赫鍾
- 全北錦山 金二述
- 全北錦山 朴贊永
- 全北錦山 鄭懸鍾
- 全北錦山 李輔龍
- 全北錦山 三信商會
- 主任 趙斗衡
- 全北錦山 金泰洪商會
- 全北錦山 朴允鳳
- 全北錦山 崔在[illegible]
- 全北錦山 劉齒科院
- 全北錦山 院長 劉富成
- 全北錦山 金善昌
- 全北錦山 金正鉉
- 全北錦山 衡平社
- 全北錦山 消費組合
- 全北錦山 錦溪館
- 龜城郡龜城面 面長 元鳳淳
- 全北錦山 錦山郵便所 所長 赤星赤水
- 全北錦山 久[illegible]
- 全北錦山 [illegible]
- 全山錦山 朴[illegible]
- 全北錦山 金[illegible]
- 全北錦山 李甲淳
- 全北錦山 李[illegible]求
- 全北錦山 南[illegible]北[illegible]所
- 全北錦山 [illegible]寫眞館
- 全北錦山 金容成
- 全北錦山 醫生 [illegible]在[illegible]

龜城

- 龜城郡龜城面 面長 元鳳淳
- 龜城郡館西面 面長 李昌之 書記 許德[illegible] 車鶴[illegible] 技手 [illegible]
- 龜城郡館西面造岳洞 春山醫院 公醫 李吉叟
- 平北自働車商會 主 李相舜
- 天摩面塔洞 土木請負業 白瑞鶴
- 龜城邑內 司法代書人 金載熙
- 龜城邑內 司法代書人 全永贊
- 龜城邑內 司法代書人 金龍源
- 龜城病院 院長 金熙中 公醫 尹龍三
- 天摩面長 朴成浩
- 沙器面長 朴成[illegible]
- 梨峴面長 崔[illegible]
- 新市 許元浩
- 松水[illegible] 林[illegible]
- 文廟直員 全[illegible]
- 鄕校掌議 金[illegible]
- 方峴面事務所 職員一同
- 龜城郡龜城面 面長 元鳳淳

二時十戶의 小作權剝奪
아무리유도업시잡어떼어 피해자들은각당국에교섭
舍音制度의弊害

경기안성군미양면진촌리(安城郡薇陽面眞村里)에사는김원백(金元伯)외아홉사람은남의토지를년래 소작하여오든바 요사이와서 사음모가 돌연권리사람의 소작권을전부 회수함으로 누구와다시변안간그들의생명과가티 넥이는 소작권을일케되어 그들의정경이 가긍한터이라는데 그와가티 억울함을 당한소작인들은 그곳 면당국(面當局)과경찰관(警察官)에게 교섭을 거듭하는동시 권리 사음에게그리유를질문한즉 동사음은 강경한태도로 뎌히노코 진촌리사람에게는소작권을아니지을터인즉그토지를 소작하라거든 다른동리로이사하라는 무리한 말만하고명확한 리유는 잘밝히지안는다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권리사음이 작년추월에 권리소작인들과그근처에잇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비료(肥料)를 주엇다가가을추수때에 권리 비료대금을한가마니(叺)에 벼(租)로너말(五升入一斗)식계산하여바덧는데이것을대금으로환산하면그때곡가로구원(九圓)에해당하엿슴으로 그무리한폭리를 일반이비난하자 이사실이 각신문지상에긔재되엇든바 이것이 권리진촌리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온것이라는 혐의로 권리와가티진촌리부락에잇는소작인들에게는그와가티 가혹한행동을 한것이라는바 이것이 만약권리관령의중재로도잘해결되지못한다면그 파동이 어느정도까지미칠는지 금후가더욱주목된다더라(안성)

災年이라고 小作料免除 사천정지주가

작년한해로 흉년을당한 경남사천(泗川)에서는 일반농민이 곤난을당하고잇는데 본읍선인동(宣仁洞)에거주하는 정진식(鄭鎭植)정갑식(鄭甲植)형뎨는 재난이라고 자긔토지의소작을 면케하여 주엇다더라(사천)

中國人强盜 日本人을射殺 합이빈에서

지난이십구일 오전열시에 합이빈석두도가(哈爾賓石頭道街)에잇는종강상회(鍾江商會)라는일본인상점에는 중국인 강도세명이 각기권총을휴대하고 침입하야 현금을 강청하고 잇슬때에 물건을 사러들어가든 구보인태랑(久保寅太郞)이라는사람이 이것을보고강도라고 소리를질으며 뛰어나아나는것을 권괴강도들이 권총을란사하야 심장에탄환이마져 즉사하매 강도들은 어대로 도주하야 버리엇슴으로 종강상회는 아모손해도 당하지 아니하엿다하며 합이빈총령사관 경찰서에서는 사면으로비상선을느리고 범인들을 극력수색중이라더라(합이빈)

疑雲이重疊한 華川金組問題
조합에서는빗을주어엇다고 조합원은빗을쓴일업다고

강원도화천금융조합(江原道華川金融組合)에 근무하든 서긔두명이 어리석은 조합원을리용하야 별별수단으로 편취소비한것이 발로되어 경찰의취조를바든후 춘천검사국(春川檢事局)에송치되엇다함은 련일보도한바어니와 권괴사건으로하여 화천사회의 물의가 분분한터인데 두동중에잇는 동조합에 또한괴대부사건(怪貸付事件)이잇서 지난이십팔일에 조합원과 조합사이에일대문제가생기어 조합사무실에서 떠드는소리가 외부에흘러나오게되엇스니 이제그 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 상서면 신풍리(上西面新豊里)에사는 박갑성(朴甲成)씨가 조합원인 자긔의부김학수(金學守)의명의로소화사년사월일일에 근저당설정(根抵當設定)을한후 부동산담보대부금(不動産擔保貸付金)으로 팔십원을 차용한후그달이십사일에또한칠십원을차용하엿는데 권부일백오십원을차용하엿다는바 금번리자납입통지서(利子納入通知書)에 보증대부금(保證貸付金)으로 륙십원을썻다고하엿슴으로 권괴박씨는 의외의일에놀라 자긔는 일백오십원만 차용하엿고보증대부금으로륙십원은권연차용한일이업다고하야조합에들어가서긔들에게욕설을하며그와가티떠든것이라는바조합에서는틀림업시대부햇다고하고조합원인박씨는 진정코 차용한 일이업다고 주장하는괴사건인 만큼일반은나막의 여하를 매우주목하고잇다더라

借用한일업소 金六十圓은
◇借用人朴甲成氏談

세상에이럿케서야 조합을밋고 돈을쓸수잇습니까 일백오십원박게쓴일이업는데 이백십원을썻다고하니 륙십원은 누가썻단말입니까? 지난사월일일에부동산대부로팔십원과 보증대부로륙십원을 썻다고하나 커는팔십원박게 더쓴일은권연 업습니다 그러나회로서긔로잇든 림원규(林元圭)가취급을하엿는데커는 어련하랴하고 꼭미덧섯답니다 금번부정사건으로 문제가 복잡한것을괴회로서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쓰고도안썻다고 한다고도한답되다마는 그런말이 어대잇서요 쓴일이사실이라면 하필 륙십원만 안썻다고 할것입니까 참억울하기짝이업습니다

貸付한것은 틀림업는事實
◇取扱書記林元圭氏談

정식으로 무르시는 것입니까! 사실인즉 커가 취급하엿는데 사십사일에 칠십원하고 대부한것은사실입니다 차용증서(借用證書)를보셔도아실것이 아닙니까? 차용금신입서(借用金申込書)를가지고 대서소에 차용증서를쓰러갈때에금액은보지안앗든가요 그런가요 차용한후 이백십원의 대한리자를 근밀이 물러오다가 이제와서 안썻다니말이됩니까 문제가생겨도권번리자통지하엿슴애생긴것임니다 필경금번부정사건으로 문제중에잇스니까 뒤집어 씨우려고하는 악한수단이지마는 권대로될수업슬터이지요 당신도조합에사변동안이나 근무하섯다니 짐작하실수잇슬것입니다 세상아모리 무섭다기로 이런일을할일도잇습니가?

新幹泗川支會 림시대회

신간회사천지회에서는지방사정에인하야 매회소집이 곤난함으로 지난이십사일에 본보 사천지국에서 간사회를 개최하고 황성칠(黃性七)군의사회로 림시대회에 대한토의를하엿는데 회원십인에 대하야 일인식대표 회원을선정하야 림시대회를개최하자는결의로 석에서대표회원이선출되어 림시의장강병생(姜秉生)의 개회사로 림시집행부를 선거한후각양의안과임원개선을하엿다더라(사천)

◇委員 執行委員長姜秉生 執行委員 朴南奭 黃性七 李先童 金率題 金學淵 全種玉 檢査委員長裵宗奭 檢査委員 崔炳澈 朴明祚 李有成

淸安邑內에 無產夜學設立 유지열성으로

괴산군청안면읍내리(槐山郡淸安面邑內里)는 교육기관이라고는 공립보통학교 하나밧게업슴으로 면내 취학하지 못하는 무산아동들을 위하야 배움에 굶주린 아동들을 만분지일이라도 구해볼가하고 일반유지들은 매년두정이 「적지안흔바 금년에는 단연코 리창주(李彰周)조수씨의 노력과 오세처(吳世處)씨의 운동으로 지난십륙일부터 야학을 시작하엿다는데 교사는 청안보통학교교원일동이 무보수로 매야(每夜)열심교수한다더라(청안)

◇同情한諸氏 金德勳 一圓 同普校職員一同 吳世處 八圓十錢 李彰周 五圓 李鍾熙 曹漢翼 四圓 崔獻 趙三圓 南貴俊 金秉允 尹相奎 姜大顯 安順弼 金興泰 張石準 張鳳基 裵聞鉉 二圓 金容泰 張永煥 裵周錫 吳錫永 張浩穡 安東黨 吉村利雄 洪在成 洪性裕 尹萬鳳 金在星 安龍春 洪性浩 沈鳳燮 吳應萬 王常富 林奎夏 張聖局 張冰一 一圓 合計八十四圓拾錢也

從業者大打擊 簟子價暴落으로
갈작이오할이상하락으로 永興細民生活에威脅

영흥룡흥강지류일대(永興龍興江支流一帶)인 억기면진평면주민(億岐面鎭坪面住民)의대부분은 자리제조업(簟子製造業)으로 전업(專業)을 삼아왓스며 또그외에 여간농업이라고 조곰식하든 일부의주민들도 금년농사는한재수재충재풍재(旱災水災蟲災風災)로 농지는 전부 쳐지가되엇슴으로 하는수업시 점자제조업으로호구지책을강구하든바 지난달까지도 시세가조하나려오든 점자갑시 돌연급격하게 오할(五割)이하로 폭락되어서 실로그들의 생계(生計)가 막연하기짝이업는데 그나마 점자를만히매수(買收)하든 영흥산업조합에서도 점자가격의 폭락하는경향을보고지금은조금도아니사고 현세만관망(觀望)하는 중이며 그외의 소상인(小商人)들도지나간가을에 영흥산업조합과의격렬한경쟁으로말미암아대부분은 실패하여버리고 남아잇는몃사람조차 이번점자 가격이폭락하는판에 적지안흔 손실을보고 그들도역시 사지 아니하는중임으로 점자업으로 생명을부지하려든주민들은한푼의수입도볼수업스며 더구나 오할이나 저락한 점자가격이다시오를리라고는 보증할수업는 세모(歲暮)를 당하야 채권자(債權者)들은 돈내라고 조르고 또그들 점자업자들의대부분은 점자원료(原料)인갈(蘆)을구입하기위하야 산업조합돈을 서로 련대하야 대부해섯든바 산업조합도 그들의 생계가점자 가격의 폭락으로인하야 막연하게 되어 대부금을 회수할수업는터이라 「대부금을 회수하기작이업다더라(고찬)

茂長普校音樂

고창군무장공립보통학교에서는지난이십삼일밤에 음악회를 개최한바 정각전부터모혀드는 남녀로유의관객으로대성황을일우엇다더라(고창)

振明講習盛況

평북박천군남면동하동에잇는진명강습소는 지난십일월일일부터 동동에잇는 유지청년이김태현(金泰賢)군과김리희(金莉會)군이 농촌에잇는 아동을 교양하기에노력한결과 금일에와서는 생도가 약칠십명이나된다더라(박천)

大邱新幹幹部 朴明茁氏放免 지난이십륙일에

신간회대구지회(新幹大邱支會)간부(幹部)류연술(柳淵述)박명줄(朴明茁)류쾌동(柳快東)정운해(鄭雲海)사씨는지난이십일경모사건의 혐의로 대구경찰서에검속되어 엄중 취조중이든바박명줄씨를 제한외삼씨는 지난이십륙일에 방면되엇스나 박명줄씨만은아즉검속중인바사건의내용은비밀에부침으로알수업다더라

郵便赤囊紛失
다수의우편물신과 현금륙백원든것을 漆原서馬山에輸送中

괴사년의마즈막날인지난삼십일일경남칠원(慶南漆原)우편소로부터 자동차로 마산(馬山)우편국에 수송한적낭(赤囊)을 칠원마산간도중에서분실(紛失)하엿다는데 그중에는년하장과 수백통의 서신외에칠원우편소장으로부터 마산우편국장에게 보내는 현금륙백오십원이드러잇다하며일반주민들은분실이러한사고가 두번재라하야 관계당국의부주의를비난한다더라(칠원)

地方短信

◇价川天道人山紀念式開催 평남개천천도교(平南价川天道敎)에서는지난이십사일 주일괴념에 괴념식(紀念式)을리상옥(李商沃)씨사회로 거행하엿다더라(개천)

知禮

染料販賣成績良好‖慶北金泉郡知禮面市場에잇는染色工場은今年八月頃부터設置되어現在洪暢基洪淳用兩氏가經營한다는바該工場에서染色原料를直接製造한다는바一次染色한것은褪色도아니될뿐光彩가매우조타하며其外재료롱淸石硫도製造販賣하는바該工場이設立된以後로는色服着用이매우盛行되어販業成績이頗良好하다고

◇酒造組合好評‖知禮酒造組合은崔正燮金石君氏等이合資하여서經營하는것으로設備를改良하고酒改良에努力하여오든바近頃에이르러서는酒味가매우良好하다하야一般販賣業者들의大歡迎으로賣上高가만히增加되엇다고

◇駐在所長榮轉‖上部里에잇는駐在所長日人某는邑內飲食店志願者中昨年에願書提出한사람이許多하다는데아무消息이업슴을其外에도住民의利害에關係되는일임에도不拘하고怠慢한點이만흠으로一般의非難이매우만타고

錦山

◇錦山農業品付賣出‖긔보한바와가티금산번영회에서는작년부터조선인상업자들이상업번영회를조직하야 진흥을도모하야 경품부판매를 시작하엿는바 금년에도 십팔개 상회가련합하야 여오는일월일일(陰十二月二日)부터경품부판매를시행한다는데 추첨장소와 상품은 알에와갓다더라(금산)

◇抽籤場所 錦山消費組合

◇賞品 一等二人 白米一俵衣籠一臺 二等四人 二圓以上의品 三等十八人 五十錢以上의品 그밧게 칠등까지잇다는바공첩(空籤)은업다고

◇女子夜學開催‖금산긔독교회에서는금산에녀자 교육기관이업슴을 늣기고 미약한녀자교육계에 다소의 교육시설을 두어 조금식이라도보급식혀보고자 이번녀자야학을 개최하랴고 방금 생도를모집중이며 장소는 금산심광학교이며개학일은 삼이월 삼십일부터이라는바 현금 주최자는알흐로일반인사에게만흔도음이잇기를바란다고

◇米穀輸出高‖미곡검사소금산지소(米穀檢査所錦山支所)에서 십일월 십이월량개월중검사한현미(玄米)대두(大豆)등의수출고는일에와가튼데현미만은군산항으로 전부가 수출되며대두는옥천역으로수출되어일본으로가게된다고

◇十一月 玄米 四八三五叺 大豆 三五六七叺

◇十二月 玄米 三六三五叺 大豆 三三八叺

長連

◇毆打‖은율군북부면 운산리 표정준(殷栗郡北部面雲山里表貞俊)(三六)이란자는 지난삼십일경에 인학(仁學)(六)이가 자긔에잘못한것을책한다고부수란타하여 마시는기절까지하엿다는바 표인학은지금자긔아들에게내여쏫기어동리김성수(金成守)방에와잇다는데일반은매향을쏫지아니한다고

谷城

◇緊縮運動實行方法討議‖谷城郡에서는지난二十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同郡廳郡守室內에各官公署員及地方有志가會合하여公私經濟緊縮運動實行方法을討議하엿다는바討議事項은左記와如하다고

◇討議事項
一、消費의節約을圖할事
(가)宴會의節約을期할事
(나)年末年始及寒暑見舞의贈答은全廢할事
(다)漸次豫防服의着用을勸行할事
(라)白衣의全廢를期할事
(마)官公署學校은消耗品의節約을圖할事
(바)可成的共同購買의方法을講究할事
(사)日常必須品의價格을揭示할事
(아)宿屋業者에게宿泊料値下를行케할事
二、貯金을勵行할事
各普通學校多設敎室‖谷城郡

◇聖誕祝賀會‖지난二十五日(크리스마-스)날에谷城郡耶蘇敎禮拜堂에서는聖誕祝賀會를盛大히擧行하엿다고

◇學議補缺‖명천학교조합평의원(明川學校組合評議員)은이미세사람이나결원되엇든바지난이십일에보결선거를한결과그득점된상황은다음과갓다고
十五點‖松原操 十三點‖小林德一郎 八點‖西樹市次郎 弘中勝

◇敎育研究會‖함북도교육회(咸北道敎育會)에서는오는일월이십이삼량일간청진소학교에다가 교육연구회를개최한다고

◇魚油檢查期變更‖함북어대진(咸北漁大津)에고기기름검사기간이전에는 칠월일일부터십이월이십일외사로 되엿든바 이번에는 칠월일일로부터다음해삼월로 변경하엿다고

明川

◇各面普通學校‖上古面 보안상고 上岩(...)

◇成人教育講習所‖이미보도한 명천군내성인교육강습소는 상고면(上古面)에한하여서만 설치된곳이 팔개소이라는데 그중 개소에대한 생도는 삼십구명이고교사는 한명이라는바 설치된곳은다음과갓다고 浦上洞 鏡師洞 浦中洞 仲師洞 寶村洞 內山洞 寶津洞(寶村洞에는二個所設置)

◇龍洞獎學會‖명천군하고면룡동(下古面龍洞)에서는이제로부터사년전에그곳유지들힘으로써운영하여오든무산자야학강습소(無産者夜學講習所)가잇서서그곳청년들에게 다대한리익을주엇는바 그후경영난으로말미암아필경폐쇄되엇든데이를유감으로 생각한그곳청년들은 다시그야학을 경영하고 다음과가티 과야학교수를 무보수로 담임하엿다는데 그장학회임원 사십여명에달하는동네청년들은 일면으로 모금하야 수업료도 밧지안코가르치기로하엿다고

◇獎學會任員 會長崔光勳 總務崔秉錄 財務許昌鍵 書記玄南極 評議員玄應勳 崔南勳 許乙斌 許璿榮 顧問崔偶猷 許在榮

◇夜學教授負任者 漢文崔光煜 國語‖許昌鍚 崔培律 한글‖玄南極 算術‖龍基敬

◇金解禁과商人被害‖금해금문제로하야만흔 물품가진상인들이 대타격을당케 된것은 이미다아는 일이지만 위선명천군면해안에잇서서어비료제조업하고 잇는상인들만 의피해여부를 조사하여 본지라 소자본가지고하는 사람으로서는권주의독촉을견댈수가업서물품이나는족족관매하는 관계로그다지피해가업지만자본이나가지고 장차 조흔시세를기다리느라고 물품을만히 저치하여 두엇든 사람으로는 누구나다 몃천원식 손해를당치아니한사람이 업다는데 위선 량화(良化)에잇는모상인은개인으로써 손해당한것이 일만이삼천원에 달한다고 하니명천군안에서 어비료제조업하는사람들 총손해고만으로도 이번금해금 문제로서 당케되는총액이 무려사오만원에 달하리라고

謹賀新年
004454

瑞山

瑞山郡廳

雲山面長 尹承秀 外職員一同

聖岩面長 尹周榮 外職員一同

八峰面長 任在準 外職員一同

高北面職員一同

瑞山邑內 肥料農具商 大久彌太郎 電話一八番

瑞山邑內 瑞山釀造場

瑞山邑內 京橋屋洋服店 主 朴聖奎

汶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新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奉日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瑞山面事務所

洗濯石鹼製造元 亞普露商會 趙義泰

㊂瑞山運送店 電話三六番 振替一五七六一番

瑞山 國安精一

瑞山消費組合

瑞山市場 綢緞布木和洋雜貨商 金泰興商店

瑞山邑內 金永喜

石原今朝八

瑞山市場 改良染料製造元 瑞泰洋行 尹起燮

瑞山 金福煥

瑞山邑內 禮興時計店 主 李致鎬

瑞山寓居 金潤根

忠南瑞山 高麗人蔘 各種燒酒 陶砂器 開城特產商會 李淑元 趙林孫

瑞山市場 綢緞布木商 李定福 振替京城一一〇七七番

瑞山郡雲島 旅人宿營業 邊貞潤

瑞山 司法代書人 金鍾協

瑞山 司法代書人 田泳奭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金相淇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柳根穆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李揆唐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朴熙生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田中峯次郎

瑞山邑內 司法代書人 星子弘立

瑞山 李斗殷

瑞山郡音岩面所前 雜貨商 金海雄

坡州

金村郵便所 所長 野村節男

坡州郡廣灘面事務所 職員一同

奉日川市場 日興館 主 金龍俊 妓生 李紅彩 李桂紅

京義線汶山驛前 坡州釀酒組合

金村金融組合 理事 柳準熙

坡州郡瓦石面 面長 尹陽秀

坡州 郡守 金振玫

坡州郡條里面 宋秉德

京義線金村驛前 金善濟

京義線金村驛前 金村釀酒造場

坡州郡條里面奉日川市場 奉日川釀酒場組合

坡州郡廣灘面倉基里 朴鎭鎬

汶山郵便所長 力武嘉吉

京義線汶山驛前 李鍾哲 司法代書事務所

坡州郡條里面 宋基德

坡州郡條里面奉日川里 金致性

坡州郡條里面登院里 李宗鎬

坡州郡衙洞面金村里 (金中久禮) 柳甲秀

淳昌

淳昌警察署

淳昌郡淳昌面淳化里 藥種貿易商 淳昌藥房主 金仁述

淳昌郡淳昌面南溪里 陶器雜貨商 鄭正善

淳昌郡淳昌面南溪里 玉川釀造場主 朴在龍

紬緞布木商 朴進圭

淳昌郡淳昌面南溪里 紬緞布木 裕和祥

淳昌郡淳昌面南溪里 商紬緞布木 王殿佐

淳昌郡淳昌面南溪里 綢緞布木商 趙岐章

淳昌郡淳昌面淳化里 理髮業 陳載徹

淳昌郡淳昌面淳化里 東一洋服店主 羅啓東

淳昌郡淳昌面淳化里 東昌洋服店主 李石溪

淳昌郡淳昌面南溪里 面協議員 申仁休

淳昌郡淳昌面南溪里 面協議員 鄭周煥

淳昌郡淳昌面南溪里 面協議員 申升休

淳昌面事務所 職員一同

淳昌面事務所 面會計員 金熙玉

淳昌郡淳昌面南溪里 公醫 李海東

淳昌金融組合 書記 白圭正

淳昌郡淳昌面南溪里 林炳漢

淳昌郡淳昌面淳化里 林喜洙

淳昌郡淳昌面淳化里 金時同

淳昌郡廳 職員一同

淳昌郡淳昌面白山里 姜泰顯

仁溪面事務所 面職員一同

淳昌郡仁溪面甲洞里 精米搗水業 韓奇鎬

淳昌郡仁溪面甲洞里 面協議員 林東洛

淳昌郡柳等面昌中里 面協議員 趙庠來

柳等面龍子組合 組合長 林駿鎬 理事 申敬休

雙置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淳昌郡柳等面外伊里 面協議員 裵準基

淳昌郡赤城面雲林里 權良玉

淳昌郡淳昌面大山里 金昇權

淳昌郡豐山面上村里 姜勳秀

淳昌郡八德面事務所 面長 金圭根

八德面事務所 職員一同

淳昌郡八德面淸溪里 朴昌燮

淳昌郡八德面淸溪里 朴南燮

淳昌郡福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淳昌郡福興面漁隱里 洪東杓

淳昌郡淳昌面昇山里 雜貨商 曺東圭

淳昌郡福興面錦月里 韓琪州

南原

南原郡雲峰面東川里 酒類製造業 朴鍾元

謹賀新年

木浦

木浦金曜會

木浦竹洞二二 徐寅燮

木浦港町 物産問業組合

木浦旭町二 鮮一社 文在喆

務安郡 長山面職員一同

務安郡安佐面長里 徐在述 主柳官五

木浦竹洞二三 映畵常設 木浦劇場 電話六三一番

木浦南橋洞郡廳前 測量設計 長遠工務所

木浦南治町 莞山旅館 主 [illegible]

木浦務安通五 代表人 金武賢

木浦港町一ノ一 三共商會 電話九二五番

木浦醫妓組合 醫妓 鄭春雲

木浦常盤町二ノ一二 全浦共進會受賞 朝鮮博覽會受賞 靴鞄製造卸 廣信商會 電話七三四番

木浦貞明女學校

木浦郵便局 職員一同

木浦壽町一ノ三 物商客主 朴正基

木浦[illegible] 招月樓 金南俊

木浦曙町一丁目 金鳳煥

木浦湖南町七 麵子株式會社 社長 李默珩

木浦竹洞 朝日旅館

務安郡都草面 面長 高玟喆

木浦昌平町 朴奎瀚

木浦竹洞一四二 金鍾煥

木浦竹洞六四 中華料理 仁華樓

木浦竹洞六四 金明峻

木浦幸町一ノ四 中央理髮館 主姜大元

木浦務安通三 梁炳震洋靴店

木浦南橋洞一二一 各種製綿 木浦製綿商會 代表 金相務

木浦竹洞六四 木浦齒科醫院 院主 武在濚 齒科醫學士 金仁觀

木浦驛前 高興旅館 電話九〇六番

木浦竹洞三二 永昌工業所

木浦南橋洞八二 우리寫眞館 張泰珠

木浦南橋洞三七 崔上三

木浦昌平町六 兄弟洋服店

木浦昌平町一四 張鐸相

木浦竹洞二六 青島洋服店 李舜鎬

木浦大正町一三 新興旅館 朴回春

木浦竹洞六四 木浦寫眞館

木浦朝日自働車部 洪鍾奭

松旨金融組合 朴璟杓

木浦永興學校

木浦竹洞 湖南印刷所 電話八三二番 振替京城二七五四五番

務安郡安佐面 漁業研究會

安佐面職員一同

務安郡安佐面邑洞里 有志 金洛其

務安郡安佐面 有志 金明石

務安郡安佐面馬津 醫生 李寬國

務安郡安佐面 有志 朴子仁

木浦大成洞一二九 回春堂藥房 申東奭

木浦南橋洞八四 各種製棉販賣所 金炳奎

木浦南橋洞五五 最新高級 日新洋服店

木浦南橋洞一三六 富士寫眞館 主孫富士

木浦榮町 金明洙

木浦水門通街里 光明堂時計舖

木浦寶町 許聖天

木浦榮町 金龍準

木浦榮町 高敬汝

木浦榮町 多嶋旅館

木浦南橋洞郡廳前 白雲堂藥房

木浦大正町一二 湖南旅館

木浦南橋洞 白羊寺布敎堂

木浦南橋洞一二三 朴萬年商店

榮町二十三番地 永月館 金孝泰

木浦竹洞二十六番地 金永釆商店 電話八二五番

木浦大成洞三十八番地 石黑質店

木浦 海鮮運送株式會社

木浦祝町三丁目六番地 鄭根澤繰綿工場

木浦大成洞二十八番地 方約面亞

木浦竹洞四十九番地 保元乾材藥房 主朴鍾惠

木浦榮町一丁目六番地 南信商會 主金玉鉉 文士日

木浦港町 鮮南商會 主郭鍾彦

木浦榮町 日出亭

木浦昌平町三番地 昌平精米所 電話四二六番

木浦竹洞四三番地 中央齒科醫院 主盧基奭

木南竹洞二二 大元紙物商

木浦竹洞四四 主金聲浩 電話九三四番

[illegible] 廣興商會 主金[illegible]

務安郡外邑面城東里 有志 朴良奎

務安郡清溪面道林里 面協議員 金貴淡

務安郡望雲面牧東里 有志 高昌權

務安郡望雲面 職員一同

務安郡海際面 海際普通學校

務安郡支隆面松亭里 有志 金南碩

務安郡外邑面 務安醫院 主任 [illegible]

務安郡清溪面 職員一同

木浦山町 トタン工 金東善

木南大正町一八 元田洋服店

木竹洞二二浦 永德洋靴店

木浦竹洞四三 金永述

木浦北橋洞一三六 醫妓 張玉花

木浦北橋洞一〇〇 權素桃 紅桃

木浦公立普通學校

木浦鶴山町三 大明堂金細工店

木浦南橋洞七〇 愼鏞玉

木浦竹洞八七 醫妓 金玉仙

木浦大正町 安登商店 電話九一七番

木浦寶町二ノ三 群山㊀商會木浦支店 電話五五二番

木浦南橋洞八五 金銀細工 各種眼鏡 錫元商店

木浦竹洞一五 金秉九洋靴店

木浦竹洞二五 希石洋靴店 主吳希周

木浦自働車部 金庶鳳

木浦務安通二丁目 高等理髮館 主趙東湜

木浦醫妓組合 醫妓 崔牧丹

木浦自働車部 電七〇四番

木浦農談會

木浦寶町二ノ三 群山刈支店 電話九三四 九六八

木浦寶町 群山㊂木浦支店 金商鎬

木浦壽町 湖南商會 主金鍾正

木浦幸町一丁目六番地 精米精穀 種子販賣 卓琮奎

木浦竹洞三十七番地 東洋館

木浦 金弼鎬 電話九二三

木浦大成洞一七三番地 易賢商 任鍾文

木浦南橋洞三三 辛泰學

木浦竹洞二 吉守命

木浦幸町一ノ二 裵興甲

木浦寶町二番地 客主 申達濬

木浦榮町一ノ六 朴泰俊

木浦竹洞四 ゴム商 劉安洙

木浦寶町 ゴム商 金龍根

木浦寶町 ゴム商 [illegible]

木浦幸町 崔汝章

木浦警察署 職員一同

木浦半島醫院 金燦澤

木浦榮町 南一運輸株式會社

木浦竹洞九三 三星製菓所 主車星喆

木浦竹洞一六 辯護士 金永洙 電話四四五番

龍岩浦

平北龍岩浦 龍成醫院 長金成柱 電話三六番

京義線良策驛前 良策金鑛事務所 鑛主李日燦

平北龍岩浦 龍川印刷所 英美式洋服店 申雲鎬 電話一四一 振替口座京城一〇〇八三番

京義線南市驛前 南市醫院 長許益元 崔宗文

平北龍岩浦 永川醫院 長金丙浩 電話三二番

平北龍岩浦 幼稚園長 金士泳

平北龍岩浦 綢緞布木 各種雜貨 東明商店 主成錫輝

平北龍岩浦 綢緞布木 和洋雜貨 都散賣 德山商店 主金熙奭

平北龍川郡府羅面松興洞 道評議員 金成圭

平北龍岩浦 榮新洋服店 主韓得元 電話[illegible]

平北龍岩浦 回春醫院 電話十番

平北龍川郡府羅面松興洞 金德圭

平北龍川郡府羅面松興洞 金錫鎭

平北龍川郡府羅面松興洞 金熙璧

詩人盧溪와그의藝術 (四)

—朝鮮文學의一研究—

李殷相

國難에當하야 盧溪는 문득 先生으로 夫子의말이 國難當하면 少死라도 可矣라하얏스니 이제 君는죽엇슨느냐하고 다시 宣祖 聲의諮詢와 ... 附註를놓고날마다 潛心硏究하엿다

그리하여 어느때는 寢食을廢하기까지하엿고 또中夜에는홀로안자 千古聖賢의氣像을欽想하면서 黃卷觀天하기로써일을삼앗다한다 이것을보면

本論에서도 若干檢討코저하거니와 그의思想이나生活이如何히 儒敎精神에影響되엇는지를 짐작할수잇겟다

그리고 그가일즉이아버지를여의고 어머니를뫼시어살면서朝夕으로 侍側하야그精誠을다하며 其疾病에게신때는 涕泣行不正하엿더라는것이나 또한及其母喪에 外를어첫다가 몃번이나혀어낫다는것이나 終生토록그어버이를 그리어한때도 평안히잇지안엇다는 것이 다만한낫『孝』라는 그思想에支配되어 그러한것이아니요 그여러가지歌謠이나 詩歌等을對照해보아 그眞心에서솟아난일이엇든것을알겟다

또 그리고 그의一生의行蹟이나 逸話들을추어보는데에 그의生活觀, 人生觀의一端이라고도볼만한 한가지가잇스니그것은 그의漢詩中의『贈崔上舍趙南詩』一切을보아알것이다

不貴人所貴
不貪人所貪
江山風與月
是我百年貪
(右意譯하면)
남이귀해 하는것은
내아니 귀해하고
남이 탐하는건
내아니 탐하노라
푸른산 흐르는물
밝은달 맑은바람
이것이 평생에
내탐하는 것이로다

그러더이詩는 光海朝十年(西紀一六一八年)癸年五十七의때에 公이治田하든 數十畝의田地를外日도업시 侵耕하는者가잇섯다

그때에公은한마디말이업시擧而讓之하고지은詩이라한다 하이것은 우수운逸話이면서도 同時에 그의生活態度가 어떠하엿든것인지를 알려주는것이라할것이다

晩後에는 盧溪洲水石의勝을사랑하야 道川江邊에 숨어가寓居하엿고 또慶州의榮玉山에들어가 晦齋李彥迪先生의遺蹟을찾고 寒岡鄭逑先生에게나아가 자주 請敎하엿더라하니 世所謂『安貧樂道之誠은老而不倦』이라는말 그대로를實行한이라하겟다

그리고 또漢陰李德馨相公과 親交하게되어 漢陰相公이推薦하여 大用코저도하엿스나 에는宦路朝朝가지나고 書朝에돌어서버려 不果하고 相公自身조차 漸老되어 龍津에돌러나오니 다만盧溪도 相公과從遊함뿐이엇다

그리하여 仁祖二十年(西紀一六四二) 壬午 十二月六日에 八十二의高齡으로辭世하니 그의夫人은 李舜臣의女요 生二男하니 長은興立 次는敬立이엇다

이 李舜臣의女라는이는 世周知의忠武公李舜臣의女가아니라 忠武公의女는洪棐라는이에게 適하엿다하니 이는아마同姓名의 다른李舜臣이엇든모양이다

이러하고보면 盧溪의後半生一截은 讀書修行의儒士이엿다하리니 前一截의赳赳武夫이엇든것과 서로비겨보아 그의一生은傳記그것으로써도 興味잇는것이라하겟다 (續)

새해 (佳作)

柳海鳳

동모여!
새해가온다고
해가 西쪽에서 쏘는것은아
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케가어케요래일은래일이다
보라!
亦是 방이온뒤에 낫이오지
안는가?
나라가잇슬꺼
돈이잇슬꺼
生命이잇슬꺼
잠스러운새해가 우리에게도
오나니
동모여!
새해가온다고
해가 西쪽에서 쏘는것은아
니니라

詩壇漫評 (一)

旣成詩人、新興詩人

申孤松

◇序

現今詩壇의大勢는 混然한가운데서라도 다음과가튼流派로 大別할수잇슬것이다 一은前代로부터 繼承하야오는詩의文學的純粹化를 부르짓는一派와 二는이와對立의形勢에잇는 階級藝術詩派이며 또하나無視할수업는것은 新進詩人—世上이비록認定치는안흐나—一派일것이다 一은大多數가 沒落過程에잇스며 二는 歷史的必然性으로부터出現하야 階級發達과함께 人類의全文學이될過程에잇스며 三은비록意識이不鮮明하나마 確然한意識이나면 詩壇의後繼者가될一派이다 그러나 그들은그不鮮明性으로하야 多分의危險性을가지고歧路에立하여서 一步를잘못하면 沒落의非運에싸지고말것이다 筆者가論코저하는主旨도곳 여기에重點이잇는것이다 前代의諸詩人과 階級藝術詩派의必然的運命을土臺로하야 新進하는젊은詩人의方向을 指摘코저한다

◇停滯

春園 요한 岸曙 素月 樹州 象牙塔 月灘 露雀 巴人 古月 殷相 無涯等等—

—어둡은詩壇의選人이다 그러나 現今에잇서서 그들은 文學上何等의進展을 보여주지도안는다 벗아서 新時代에對한積極的인 意力은업코 非時代性입으로써 幻滅에呻吟하고잇지안는가

春園의외침을보라

아아 同志여!
우리가 쉬다고말라!
同志여 오직
『우리가잇다!』할지어다—
—同志의一節

그는人道的先見으로 이러케 朝鮮을보고외첫다 그러나그는

조선을버리지
아아참하리 버리고말가
—朝鮮을버리자의一節

이러케 辛倒하야 버리고말엇다 요한은 늘 룔夫처럼恨歎도한다 그리고 純眞의態으로 避身도한다 理想主義的主觀과 純眞이란現實과의 二律背反에 呻吟하고잇지안는가

『懊惱의舞蹈』에서 始作하야 『南池』에 남을두고 身彌島三角山에 依然히비웃치지안흥을줄고잇스며

생각을길을차자 超해다녀도
이몸은어이하야 흐지남엇노

또如何히俗學者의口舌에집어넷코저하나 그의舞蹈는 ...然한 스럽분이다

樹州는 언제까지든지 『강낭콩보다 며푸른물속』을 注顧하고잇스며 무궁히 긴江물만부려워할것인가

愛國詩人巴人은 크千里외抱擁을하고 넷님군이 죽고만때상이 스러진것을 憤歎한다 『곳흠식놓은 죽은山川의 香氣로 殷飮식혀버리고 衛明로나오너라 그리고 X學하는大衆의 先頭에나서지안흐려는가

放漢의詩人 象牙塔은 天下의靑年學生을招致하야 詩壇의慈父 又는帝王으로 君臨하야 『朝鮮詩壇』의寶座에안저잇스며 依然히病的으로 象徵을노래하며

나는宇宙最大의濱人이란다

라고 호령한다 이年老無力한 慈父여!君主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듯이우리다
—진달내쏫의一節

素月은 어느해부서시 아름다운詩에 陶醉하야 진달내쏫치 떨어진쏭을 몰으고잇다

『데카단』인月灘 『니히리스트』인輝國 超現實的病的心理活動으로 頹唐한지오래이다

古月은 感覺的有能과 貴族的無能으로말미암아 落月故人이되엿다

가을산에올라서서
눈에보이는 七八十里
내압헤버려노흔 솔상아닌가
—登高의一節

醉한殷相은 부르또아的步法으로 山에올라간다 그러다가 러커神에게祈禱를한다 나는떠러졋소이다라고

永劫의한瞬間에 『바벨의塔』을켜다보고 抜巧의솜위에서 永劫의웃날을眺望하다가 無涯는墜死하면서도 『오!나의文公이여』를외친다

詩의藝術的純粹化를 부르짓는 諸詩人群은 이러케 幻滅의非運에잇고 頹敗의구렁에들어서잇다

이따게도 ... 等等이잇스나 그들은누구나다 都會의 무... 은또아性을 多分히呼吸하고 『데리케!—』한... 에장고대처고잇다

◇푸로레詩人群

階級意識을노래하는 詩人들을 列擧하면 赤駒 ... 相和 石松 海隅 ... 林和 朴英 ... 等이잇다

그러나 이모다를 푸로레타리아詩人이라고 ... 할수는업슬것이다 ... 意味에서는 一二人외못된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비록相和와 石松이가 多分의 階級的情熱을노래하엿다해도 그들은 『이데올로기』에잇서서 昇華하지못하엿스며 『숨레아리스뎀』한主觀으로 階級을보려고한다

石松은이러케몽무를찻는다

오뭉무여!
그대는어데서사는가
오黃金의나라 『아메리카』인가
傳統의나라 『잉글랜드』인가
壓服의나라 『러시아』인가
X
오 큰소리가 들닌다
영뭉이의한구석이 문허지느냐!
새로운빗이하나가 생겨느냐!
오오太陽은 웃는다
오눈도어케와가려!

오래동안의沈默에서 世上을注視하고잇든石松은 이러케외첫다 이것이石松의사나희다운 큰이엇다 그러나그는 超現實的意識을보이고잇다 아즉도 『아나』의系統을버서나지안헛나보다 웨좀더積極的轉換을하야 『푸로레타리아, 레아리슴』으로 도라가지아니하엿는가 (?)

盟誓 (佳作)

李貞求

아버지시어—
당신이 만약 당신의아들을
爲해
온세상어두운길을 닥다가
힘이모잘하시다면
내 한해 두해 길러온힘이
잇삽나니
그대를爲해 어힘을 안바치
오리
X
아버지시어—
당신이 만약 당신의아들을
爲해
무섭게싸우다 傷處를내고
피를 흘리신다면
내 한해 두해 모아둔 피
가잇삽나니
그대를爲해 이피를 안드리
오리

新刊紹介

◇眞生(新年號) 定價二十錢發行所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九基督敎青年會勤勵會朝鮮聯合會振替京城一八七六番

◇滿洲青年聯盟(新年號日本青年雜誌)定價十錢 發行所大連市山城町七ノ一滿洲青年聯盟本部振替大連一〇八一番

◇テニスの友(新年號) 定價十五錢發行所東京市外瀧野川町北谷端二一八六テニスの友社振替東京二七六六〇番

◇生活と宗敎(新年號) 定價十一錢 發行所名古屋市中區南久屋町二ノ七破塵閣書房振替名古屋一二五一二番

◇朝鮮地方行政(新年號)定價五十錢 發行所京城太平通二丁目四四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振替京城三〇二番

◇사랑의學校 李定鎬譯 五百四十餘頁內容充實 美麗한裝幀 揮毫等挿入 定價一圓二十錢 送料廿二錢 發行所京城寬勳洞一三〇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以文堂

◇別乾坤(創刊十週年新年號)定價五十錢發行所京城慶雲洞八八開闢社振替京城八一〇六番

阿Q正傳 (二)

中國 魯迅作 白華譯

趙太爺는 보면볼사록憤한생각이나서 두서너걸음압흐로나온다,『엉터리업는말도 작작해라! 너가튼놈이 一家냐?네姓이 趙哥냐?』

阿Q는 잠잠코 뒤로물러서라고할때에 趙太爺는 덤벼들어 철석 한번붓친다

『너 어쪄케 趙哥라는姓을갈엇느냐——너 어데서 그姓을닐엇느냐!』

阿Q는 저가 趙哥라는確證을들어 辯解도아니하고 단지손으로 왼뺨을 만지면서洞所任파가려나왓다 밧게나와서 또洞所任에게 한바탕톡톡한 꾸즈람을듯고서 二百文의술갑을내노코 洞所任에게죄하얏다 이이야기를드른者는 모다말하얏다 阿Q는荒唐한놈이야 제가 장책질을하얏벼여 그놈은必是 趙哥가아니어 設令 정말姓이趙哥라하드래도 趙太爺가 여긔계신데 그런진수작하다가는 안되지 그런뒤부터 다시그의氏族을말하는者가 업서서 阿Q는 맛츰내 무슨姓인지 나는아지를못하얏다

셋재는 나는 또阿Q의이름을 어떠케쓰는지 아지못한다 그가 살아잇슬때에는 사람은모다 그를阿Quei라고불럿다 죽은뒤에는 그를阿Quei라고 부르는者가 지도업섯다 어떠케 『著之竹帛』(이를 竹帛에 나타낸다) 할수가잇슬가 만일에 『著之竹帛』한다는것으로부터 말을하면 이一篇의文章이 맨처음임으로 먼저 이難關에 다닥드려다 나는가만히 생각하야 보앗다 阿Quei는 阿桂 或은 阿貴인지도 모른겟다 만일 그에게 月亭이라는號가잇고 或은 生日이 八月中旬이면 그야말로 阿Q가 分明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號가업다—號가잇섯는지도모르지마는 그것을아는사람이업다—그리고 또生年月日을 적은手帖가튼것도남아잇지를 아니함으로 阿桂라고 덕定하야버리는것은 범우나 武斷이다 또만일그에게 兄이나或은아우가잇서서 阿富라고 부른다면 그야말로阿貴가 分明하다 그러나그는 또全혀獨身이고보니 阿貴라할佐證이업다 이外에 그Quei라는音는字는 僻字가되어 더욱이들어맛지아니한다 前日에 나는趙太爺의아들 茂才先生에게무러보앗더니 그도록 事物에밝은사람이것마는 범벙하얏다 그러나結論으로부터 말을하면 陳獨秀가 雜誌新靑年을맨들어서 羅馬字를 提唱한뒤로부터 國粹가업서저서 查考할수가업게된것이다 그래서나의最後의手段은 어느同鄕사람에 付託하야 阿Q事件의判決文을 調查하야달라할수밧게업섯는데 八個月뒤에 겨우答信이 온것을보즉 判決文中에는 阿Quei의音에 近似한者는 도모지업다고하얏섯다 나의自身으로는 설마로 그것이 업다고 말할수는업지마는 인제는이우에더調查할수도업고 다시道理가업슴으로 注音字母로는 一般이아지못하리라고 생각하야 어쩔수업시 『洋字』를 使用하야英國流行의方法으로 그를阿Quei라쓰고 다시 省畧하야阿Q라고하얏다 이것은『新靑年』에盲從한것가태서 나스스로도 遺憾으로생각하는배지마는 그러나 茂才先生까지도 오히려모르는것을 나에게 또다시무슨조흔 道理가잇슬가?

넷재는阿Q의 原籍이다 만일에 그가趙姓이엇드라면 現在 흔히 쓰는 郡望의前例에 依하야『郡名百家姓』에 씨어잇는注解대로하면 조타『隴西天水人사람이라』하면 고만이다 그러나 可惜한일은 그姓은대단히 信用할수가업다 그럼으로써 原籍도 決定할수가업다 그는 未莊에 산일이 만치마는 여러달은곳에 잇슨일도잇서 未莊사람이라고할수가업다 만일이를 『未莊사람이란』하면 亦是史傳의法則에 어그러진다

나로서 죽음 스스로 위로되는것은 단 한字『阿』字가非常히 正確한것이다 이것만은 附會假借의缺點이 업는것이다 누가보든지 대단히 밝은것이다 그남어지것에 이르러서는淺學한나로서는 밝켜낼수가업다 단지한가지의希望은『歷史癖과 考證癖』으로 有名한 胡適之先生의門人들이 어쩌하면 將來에 만흔 새로운端緒를 차저낼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쌔에는 벌서 이『阿Q正傳』은 消滅되엇슬지도 모른다

(以上은 序라고할수가잇다)

謹賀新年

004455

珍島

珍島郡珍島面 職員一同

珍島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珍島警察署 職員一同

珍島醫院長 公醫 李心鍾

珍島郡海苔漁業組合

珍島運輸株式會社

珍島自働車部、第一、第二龍海丸 曺秉洙

珍島邑內 和洋雜貨商 蘇井奎

珍島金融組合

珍島金融組合 理事 鈴木甫十

珍島面協議員 李景旭 同 金元淳 同 藤井一二三 同 朴明在

珍島郡古郡面 職員一同

珍島郡古郡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珍島鄕校直員 金馨瑀

珍島郡古郡面 面長 金昌瑀

珍島郡古郡面 面協議員 河有清 同 朴昌辰 同 曹秉敦 同 梁計默 同 曹秉斗 同 曹永煥 同 金千宗 同 韓炳胤 同 朴天培

珍島郡郡內面 職員一同

珍島郡郡內面 面協議員 朴吉俊 同 崔基亮 同 李燦珉 同 朴基弘 同 金正奎 同 李正大 同 郭丙環 同 郭 馥 同 曺秉楠

珍島郡義新面 職員一同

珍島義信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珍島郡義信面協議員 許孟龍 同 曹海弘 同 金善淳 同 黃正熙 同 朴泰洙

珍島郡臨淮面 職員一同

珍島石橋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珍島十日市金融組合 理事 李性珪 同 安金審

珍島郡臨淮面 面協議員 曹秉詰 同 郭長律 同 李達仁 同 金馹華 同 金云彬 同 李先來 同 金奉林 同 河大寶 同 朴廣鍾 同 文德允

珍島郡智山面 職員一同

珍島郡智山面 面協議員 金中鉉 同 薛治良 同 金洛秋 同 李貞雨 同 金承杓 同 金斗玉 同 金[illegible]珍 同 鄭玄淳 同 金興根 同 林奎煥

珍島郡鳥島面 職員一同

珍島郡 鳥島漁業組合

珍島邑內 明月館

珍島邑內 蘇生醫院長 曹秉瑄

珍島公立尋常小學校長 塚越太三治

珍島邑內 枸杞子卸賣商 韓明履

珍島殖産株式會社 福島二郎

珍島郡義新面金甲里 韓權三

珍島海倉 荷物自働車部 荷客取扱、海陸運送業 近藤彌三郎

珍島郡義信面金甲里 實業家 朴月順

珍島邑內 司法代書人 朴恒洙

珍島郡義新面金甲里 黃永氷

珍島邑內 和洋雜貨商 康興澤

珍島郡義新面金甲里 金甲青年會任員 宋昌鉉

謹賀新年

金泉

金泉警察署員一同

金泉本町 鄭基東自轉車店

金泉郡知禮面校里 文炳洙

金泉郡知禮面校里 惠生醫院 尹昇烈

金泉郡知禮面市場 染料工場 洪淳用

金泉郡知禮面校里 裵德洙

金泉郡知禮面校里 張聖凡

金泉郡 知禮酒造組合

金泉郡知禮面新邱里 李鎭煥

金泉郡知禮面鬲谷里 面協議員 李炳禧

金泉郡知禮面泥田里 金乙東

金泉郡知禮面泥田里 區長 鄭年和

金泉郡甑山面公立普通學校 孫鎬英

金泉郡大德公立普通學校 校長 朴海龍

金泉旭町 米穀商 金春培 林長洙

金泉郡鳳山面信洞 鳳信精米所 朴成玉 金漢基 鄭源基

金泉本町 金銀美術細工 金光堂 主 朴乃龍 金貞培

金泉旭町 金時中

金泉城內町 金晃植

金泉郡代項面香川洞 李光烈

金泉郡金陵面多器洞 酒造所 朴桂東

金泉旭町 布木商 文昌瑞

金泉郡開寧面大光洞 酒類製造 金在源

金泉郡位良面九野洞 郭祚儀

金泉郡 位良面事務所

金泉郡助馬面北岩洞 金敎錫

金泉郡甘川面道邱洞 酒造所 崔萬輪

金泉本町一三二番地 和洋家具 建築請負 農具製造 各種木物 進興商店 主 鄭[illegible]

慶北金泉郡金泉面旭町 海陸物産 委托賣買 元昌商會 主任 羅鎭允 裵度淵 電話二六五番 電報略號(ゲン) 私書函十一號

金泉城內町 最新式各種 洋靴製造 大昌洋靴店 主 崔一用

金泉本町 仁宣醫院 院長 姜錫俊 電話二六四番

金泉郡釜項面柳村里 旅人宿 朴亨東

金泉郡釜項面柳村里 金珍泰

金泉郡谷松面台村 權性麒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洪在淑

金泉城內町 司法代書人 權尙集 電話一五四番

金泉 伊藤季薰

金泉旭町 三共商會 崔[illegible]三 申[illegible] 佐[illegible] 電話二五九番

京釜線金泉黃金町一四八番地 米穀雜貨 莚蓆肥料 有名賣藥 綿布酒類 順興商店 張[illegible]

金泉南山町 朴喜彰

金泉郡南面玉山洞 姜陽根

金泉郡大德面中山里 文箕鉉

慶州

外東面竹洞里 張世潤

內南面酒造組合 主 孫晋式

內南面事務所 孫晋久

內南面德里 崔海[illegible]

內南面望四里 李鐘和

佛國寺驛前 李永善

外東面掛陵里 張台現

外東面竹洞里 金秉祚

慶州 道評議員 崔錫煥

慶州山內面酒造組合 主 徐應春

慶州山內面甘山里 金在洪

慶州江東面良洞 李錫泓

慶州山內面甘山里 李永久

慶州西面事務所 面長 全慶浩

慶州郡內南面舊長里 金車福

慶州本町 世昌洋服店 主 金[illegible]

中外日報慶州支局 支局長 金在權

慶州妓生組合

永川郡北安面 職員一同

永川郡北安面林浦洞 黃武錫

慶州郡西面阿火里 金在水

慶州本町通り 司法代書人 丁奎赫

慶州大市場通り 李應文

慶州本町通 慶東旅館主 安玉林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 慶州支店

慶州本町通 東都印刷所

慶州本町通 歸一商店 主 白[illegible]

慶州本町通 映文堂書店 主 李相[illegible]

慶州本町通 永興洋服店

慶州郡慶州面校里 道評議員 崔潤

慶州郡川北面龍江里 金在典

慶州邑 白璐準

慶州邑 大東醫院 院長 崔[illegible]

慶州郡慶州面西岳里 李範寅

內南面伊助里 崔海模 崔[illegible]澄 崔炳玟 崔相韶

內南面栗洞 權五鎰 權容和

慶州西面泉村 李相聿

佛國寺精米組合 李泰雨

外東面入室精米所 林度演

外東面開谷里 朴淙鎬

慶州西面乾川金融組合 林根業

慶州西面松仙里 鄭[illegible]澤

永川郡北安面廩官洞 鄭源道

慶州郡西面權捂洞 金[illegible]坤

慶州郡西面道里 金國憲

慶州本町通り 松葉婦人商會 主 郭聖鶴

瞻星舍落成及大同譜竣工의際에新年을迎하야各派宗氏의健康을祝함 慶州郡慶州面路西里 慶州李氏大同譜都有司 李圭桓

佛國寺 合名寫眞館

佛國寺吐含山旅館 主 金萬福

佛國寺驛前 崔甲德 崔慶德

慶州外東面淵安里 喪中欠禮 有志 裵錫基

慶州山內面事務所 面長 兪衡植

朝鮮日報慶州支局一同 新幹會慶州支會 朝鮮青年同盟

羅州

金川面職員一同

榮山面職員一同

南平面職員一同

老安面職員一同

細枝面職員一同

茶道面職員一同

文平面職員一同

鳳凰面職員一同

羅州面職員一同

多侍面職員一同

羅州協同商會 羅州特産 竹細工品 [illegible] 百貨都散賣 商會長 金昌容 理事 梁長柱

茶道面 洪起膺

榮山浦 榮山醫院 崔翼鴻 電話一〇七番

榮山浦 全南醫院 金允根 韓百準 電話五番

羅州面本町 湖南醫院 金明濟 電話五八番

羅州面鄕校里 白南潤 電話一〇六番

羅州面土界里 許昌文

羅州面本町 司法代書人 李啓斗

羅州面本町 司法代書人 丁基哲

榮山浦 明月館 主 金在基

榮山浦 榮樂館 主 金炳五

羅州西門町 改良麯子製造所 主 曹在源

羅州本町 朝日洋服店 主 趙東鎬

羅州錦城町 錦興商店 主 丁在莫

羅州興農株式會社

榮山浦酒造組合長 吳奉煥

羅州郡廳職員一同

羅州警察署職員一同

羅州面錦町 喪中欠禮 金應允

山浦面長 韓百彦

羅州興農株式會社 社長 白南善 專務 許國香

羅州邑內 鄭安民

羅州本町 燒酒並曲子製造販賣 李昌洙

羅州邑內 朴正業

羅州邑內 金炳斗

羅州邑內 朴鳳德

羅州面松月里 崔升煥 電話一〇一番

羅州邑內 喪中欠禮 梁奇拜 電話五六番

羅州面松月里 喪中欠禮 梁奇俠 電話一〇八番

湖南線榮山浦 ◎運送店 主 朴奉一

茶道面 洪泰憙

榮山面東水里 金東赫

南平面校院里 金漢燮

公山普校 梁吉成 鄭金鐘 柳根亭

金川面新加里 金相仁

金川面新加里 金在華

金川面廣岩里 金啓南

羅州興農株式會社 李奇順

公山面佳松里 朴魯錫

洞江面長東里 朴德華

洞江面長東里 朴鎭碩

羅州邑內 金禎奎

榮山浦 殖産銀行支店 中村[illegible] 朴[illegible]石

湖南線古幕院驛前運送店 主 羅基賓

羅州大正町 朴東俊

榮山浦 醫生 李喆[illegible]

鳳凰面龍谷里 李萬[illegible]

鳳凰面龍谷里 裵[illegible]

潘南面新村里 羅駿集

潘南面新村里 李明用

南平面大楸里 酒類販賣 崔達元

多侍面東堂里 柳泰錫

老安面安里 洪正[illegible]

松汀里驛前 李相[illegible]

羅州面 金昌律

山浦面內基里 崔鎭泰

山浦面內基里 [illegible]吉

榮山浦 橋本印刷所

羅州邑內 日用雜貨高此式深耕犁 附屬品一切特約販賣其他委托 福元商店 主 鄭福基

洞仁面長泉浦 江山精米所

老安面永平里 金熙國

老安面永平里 金基碩

金川郡村谷里 朴永彩

全南榮山浦 [illegible]商會 金福元

羅州[illegible]改良[illegible]生産組合 榮山浦販賣所 丁在仲 電話五十番

榮山浦 金[illegible]

羅州邑[illegible]醫院長 羅燾山

羅州邑東[illegible]寫眞館 主 鄭遇琰

老安面金安里 洪彦植 洪紀植

旺谷面[illegible]山里 黃[illegible]元

羅州本町 李昌燮

榮山浦 李南[illegible]

本良面山水里 吳正根

榮山浦 文正周

榮山浦 支那料理 長江樓 電話一八番

公山面佳松里 金東烈

公山面上方里 鄭文甲

龜城

五山面新池里 林秉大

五山面月浦 張俊根 金泳鶴

五山面木川里 金漢城

五山面南田里 沈鯉澤

五山面五山里 金成澈

全北裡里本町 古物商 朴鶴來

全北裡里驛前 司法代書人 金永燮

全北裡里本町 司法代書人 金一國

市勢와商況 (四日)

株式 前場慘落
解金實施압두고 一端低로初立會
買方氣勢劈頭부터頓挫

昨年에低價로納會를告한相場은越年後에特히金解禁初年인만큼一般은警戒人氣中에賣氣가뻔하되너매우低歉한氣分中에初立會를하얏는바大阪의低況會로然所亦賣氣旺盛하야大新은納會價보다一圓九十錢低인一圓五十錢으로寄한後五圓丁으로다시四圓七十錢으로低落大引하고大新은五十四圓八十錢의初付一本安이고鐘新은不成이오京取는十八圓三十錢인納會價와同一한價位로寄付後洪股賈로五十錢外지超然高로大引하얏다라

會는軟派의豫想과가티一齊히低價로初立會를하얏는데大阪은納會價보다一圓三十錢低인百五圓六十錢에寄會하야五圓八十錢을高價로四圓五十錢의低價로大引함에놓아然所는納會價보다一圓九十錢低價인百五圓十錢에寄會한後三十錢을高價로四圓七十錢價로五圓十錢에大引하얏스나當所는納會價보다四十錢低價인五十四圓八十錢寄付한이었는바더욱大阪鐘新은納會價보다七十錢低인九十五圓六十錢에寄會한後五圓十錢으로大引되고日產은六十錢低인二十八圓四十錢으로初付後二十錢으로大引하얏는데이가티新春初會價가一齊히低價로寄會케된것은金解禁을압둔만큼宜當하다고생각할수잇는바今後의進展如何가매우注目되는바이더라

豫想과가티 低價發會

客年에低價로納會를告한相場은雙方의期待가區區하야新春高氣分을豫想하는買方은相當한高價로發會할것이라고期待하든터이엇스나一方賣方은政界風雲新派과또는金解禁實施初年인만큼市況警戒하는人氣로그다지高價로發會를바랄수업다는觀測으로或은納會價와同一한價格으로初立會를하든지그러치안흐면新春은그다지相場의活躍을바랄수업는만큼低價로發會할것이라는主觀論이잇섯든만큼今朝新年初發

初立會와式辭

一九二九年을보낸京取市場은新年發會價에多大한注目을가지고賣買兩方의非常한企待中에드되어發會를告하얏는바大體로低落에中에包含되어發會를하얏는데午前九時半부터京取事務所에서는로부터新年에在한株界趨勢의大要와및仲買人으로서의處할바方策에對하야適한바잇섯고다시仲買人組合長新田氏로부터謝辭가잇슨後仲買人一同의拍手裡에初立會를終了하얏더라

期米 前場頭重
百四十餘丁의 大上鞘發會

越年後今朝初立會에際하야阪地는値여四丁上鞘인二十七圓七十二錢에新甫三限이發會되고當地는百四十六丁上鞘인二十五圓八十錢에新甫三限이發會되엇는데本年도例年과가티阪地는前場六回當地는七節外지立會를列場을마치엇는데阪地는五節六十二錢으로三錢에場을止하고當地는八十錢을最高로六十錢外지低落하엿다가六角七十錢으로結局六十三錢에場을止하엿다

大上鞘發會와 今後大勢何如

今朝阪地는僅히四丁上鞘로當地는中限은昨年納會價에比하야十六丁低落인二十四圓三十四錢으로新甫三限은百四十六丁의大上鞘로發會하엿다果然今後의大勢가何如할지一考를要하면現中川이新春新分을發揮하지못하고도리어低落을告하며따라서新甫노치會後較低이相當함을보면市中人氣가얼마나軟弱함을알수잇다그러고又는西鮮의凶荒에잇서서도米의自體로도凶作의二本이업지아니하나그러나金解禁으로因한財界는一層萎靡하는現象임으로到底히昂騰할餘地가업슴이라고云云某氏何如?

正米 依然低味

◇仁川不變—天候恢復으로入着이多少잇섯스나期米不勢와一般新年氣分이잇서아즉正月氣分이업서지자안허耐賣가거의업고市勢는三마크三等二十五圓七、八十錢、四等二十四圓十錢으로不變이나賤分小騰氣味

◇群山小强—休日中關着은九俵으로賣物도相當이잇섯고日本商船用貨로市勢小强拔三等二十五圓八十錢、四等二十五圓으로五千叭餘의商內가잇섯다

◇大邱小軟—天候快晴으로四千四十六叭이잇고期延不拂도買氣不振하야一般은新年氣分으로買見送인一方手持物은幾分賣急氣味로氣配軟弱朝來로그다지去來가업섯다

◇釜山弱含—當地로의出廻一千八百叭은모다賣急의것으로期延米의弱含에三等五圓五十錢인十錢低四等四圓三十錢간不變으로豐田、三木、橋本、片倉、龜田、廣瀨、上田、山二賣로一萬五千叭의賣買가잇섯스나아직큰出廻豐富豫想으로市勢는小鈍

狂奔【81】
廉想涉 作　安夕影 畫

새계획 (二)

『조선에는 잇기가 귀치안하요 어데로든지 가야하겟서요』

경옥이는 집에잇기가실타고하는대신에 조선이면떡이 실타고하얏다 조선이 실흠시도모르나 그보다도 계모시하인이집에잇기가실코또그보다도 정말이와 차조만날수업고 정말이와 마음노코 살수업는곳이면 어데고간에 실혀다 사랑은 개인덕으로나 사회덕으로나 큰구속이지만 또한철내의자유를 요구하는것이다 경옥이는 그자유를 엇고심혓다

『제나라 제고향이 실흐면어대를가서 살겟다는말이냐?그런주착업는소리 고만두어라』

부친은 여전히 온유한목소리로 달래엇다

『제나라 제고향은 고만두고라도 제집도 실흐면 어하는수업지안하요』

『이런떡한소리 가잇나! 제집이 엇재실탄말이냐? 너아버지가 너를 엇더케맛고 사랑하는지를―너를 내노코 내마음이 엇던지를아니? 모른니?』

부친의목소리는 좀흥하얏다

경옥이는 분안간 죽은어머니생각이낫다 눈물이 핑돌앗다 부녀는 잠잣고 안젓다 누구나 말을 쓰내고십지안햇나 인자로운마음과 가벼운 애수속에 가만히 잠저안젓다

『그리지말고 어서 결혼을하고 살림에 자미를 부처봐라』

부친은 이런소리를하고 딸의긔색을엿보앗다

『결혼은 아니해요』

『안하다니? 주군의종제가잇다지?』

경옥이는 잠잣고말앗다 그짓말이란말을할까 말가 속으로망서리엇다

『네마음에만 맛는다면 조라고도 생각한다만은 하필 주군의종제가 맛이아니라 누구든지 네마음에 드는사람이잇스면 말하렴으나』

부친의말은 어대까지 든지 인자로왓다

『그런사람은 업서요 권더공부를하헤야요』

경옥이는 그래도 쎗대어보앗다

『공부는 무슨공부를 또한단말이냐? 아무래두 네가 집에 부러잇기가 실혀서 그럼나보다만은 글세 웨그러는지를 알수가업고나 너어머니한고 눈이안마커서 그런다는것도 남이아무말이요 그러타기로 너희너매로이집에서 떤살림을하면 고만아니냐』

부친은 집안이 구순치못한것에 화가낫다.

경옥이도 부친의심사를생각하면 동정아니할수도 업스나 그러라고 커감정을 희생하는수도업섯다

『아무러턴지 결혼만하야다고 네마음에 맛기만하면 피천한푼남는사람이라도 그건상관업다 너아버지도 가진게 만치는못하다만은 네일평생먹을것이야 아니줄리업고내재산의반가량은 줄테다 인제는아들을바다지도안코 양자가튼것을때러다가 이우에또분란거리틀작만힐것도 아니니까 내가죽거권에 네게반가탕수고 남어지는정옥이와 너의어머니 목스로난호아노흘작정이다』

『커는 재산이니하는데욕심이잇는것도 아니며요 하지만지금이라도 얼마간 주시겟서요』

경옥이는 속으로 반기면서도시들한듯시히 무러다

『결혼만하면 주지』

부친은괘히 승탁을하얏다

『그럼 결혼에대해서는 아무든지켜가 택하는대로들어주시지요?』

『그래 하지만 충분히 아라보고해야지』

『아라보나 마나어버니에서 잘아시는 사람이어여』

『내가 잘아는 사람이 누구란말이냐?』하며 부친은눈이둥그래젓다 원일인지 주정방이가아닌가하는 생각이 머리에떠올으면서 겁이붓쩍낫다

『말을해보렴!』

부친은 고개를 숙이고안젓는딸을바라보며 대답을기다리다가 또한번재촉을하엿다

『꼭드려주시지요?』

경옥이는 약간상긔가 되어얼굴을 쳐들며 다시한번다진다

『정누리헌 요구면야――넘우 왕칙뒤면야……』하며 부친은말끗흘 흐리마리하다가

『엇잿든 말좀해보렴으나』

하고유순한 웃음을 보인다

『모르겟서요그짓말아요』하며 옥이는 또비쌔보앗다

『털려말어! 들을만한거면야 들어줄테니』

경옥이는 그래도한참잣고 안젓다

『누구냐? 역시주군종제라는 경도잇다는 의학생이냐?』

부친이 뭇는말에 경옥이는 고개를쳐들고 생긋웃어보이고나서

『만요! 그건 참정말그짓말애요!』하고또생글해보인다

『무어?……』하고부친은눈을 크게떳다

株式

京取短期寄引 / 京取短期當限高 / 大阪短期大引 / 東京短期 / 東京現株前場 / 大阪長期寄引 / 大阪短期步調 / 代用錢座日步 / 京城手形交換 / 主要株取組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 對外爲替 / 滿鐵谷地商況 / 海外經濟 / 橫濱生糸 / 大阪綿糸 / 大阪砂糖 / 大阪綿花 / 海外砂糖 / 고무原料市勢

[illegible]

期米

仁川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各地期米 / 群山 / 大邱 / 延取 / 釜山 / 各限後合

[illegible]

京城正米 / 仁川正米 / 仁川大豆 / 京城綿糸布時勢

[illegible]

健康第一!
世界的으로일홈난補藥
補血强壯 부루도ㅣ제

虛弱貧血病中病後
諸病恢復期 腦神經衰弱 動脈硬化症
腺病質諸症 結核性疾患 氣管支喘息
消化不良症 姙婦授乳婦 皮膚病疾患
特히外科的及諸般疾患出血로因한衰弱

—本劑의特長—
本劑는人體肝臟中에蓄藏된貴重成分인造血素와同一한集成을有한故로血液을製出하는機能을亢進케하며、營養을旺盛케하야根本的으로體質을改造하는斯界無類의補血强壯劑입니다

—本劑의種類—
虛弱、病後衰弱、心身疲勞、月經不順에 單味부루도ㅣ제 半月分一圓二〇 一箇月分二圓二〇
營養不良、神經衰弱、衰弱過度、皮膚病에 아루젠부루도ㅣ제 半月分一圓三〇 一箇月分二圓七〇
腺病質、動脈硬化症、梅毒、氣管支喘息에 요ㅣ도부루도ㅣ제 半月分一圓三〇 一箇月分二圓七〇
精神過勞、食慾不振、老衰、產前產後에 기나부루도ㅣ제 半月分一圓三〇 一箇月分二圓七〇
肋膜炎、肺尖加答兒、肺結核、百日咳等에 구아야쇼ㅣ루부루도ㅣ제 半月分二圓六〇 一箇月分四圓三〇

全國著名病院採用
全國醫學大家推奬

說明書及醫家實驗報書
小田俊三博士著「呼吸器病의養生法」
原田隆博士著「姙婦의養生法」 無代進呈

到處藥店에서販賣

登錄商標 富士山標 金鵄標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本舖 藤澤友吉商店
支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四丁目
支店 京城府西小門町一五二

第一잘듯는
벗헤글지안는
クラブクリーム
구라부洗粉本店謹製의
구라부美身그림

004456

이구라부美身구리무는얼골에美를擁아며분질이잘되어서品質第一、거칠지안코、벗헤글지안어서畏히

皇后宮職御用品

으로의光榮을擧하는中입니다…

優良한技師에依하야製作한優良品

謹賀新年

潭陽

潭陽邑內 竹製品製造販賣 海陸物產委託販賣 匡德商會 主 金善命

潭陽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潭陽邑內 潭陽印刷所 曹喜模

潭陽邑內 鄭湧寅

潭陽邑內 金城醫院長 尹敬晧 電話十番

潭陽警察署 職員一同

潭陽邑內 松田方仲

潭陽邑內 潭陽商業振興會

潭陽邑內 二三洋服店 鄭均善

潭陽邑內 鄭仲然

全南線潭陽驛前 九三運送部 韓宗完

潭陽邑內 金蘭姬

潭陽郡 潭陽面事務所

全南線潭陽驛前 辛泰煥 電話一二番

潭陽驛前 [illegible]運送部 曹東植 電話一六番

龍面斗長里 許致文

龍面事務所 職員一同

月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潭陽邑內 金炳晙

潭陽邑內 蔘草 唐草 藥材貿易商 普惠堂 主 申[illegible]主

潭陽邑內 海陸物產貿易 徐泰福 電話二〇番

潭陽郡廳

潭陽邑內 安哲洙理髮館

潭陽市場 南成고무商會 主 黃貴成

潭陽邑內 金仁奉

潭陽面南山里 鞠俊鎬

潭陽邑內 鄭奇然

潭陽邑內 美光寫眞館 主 吳鍾翊

潭陽邑內 行政代書人 司法代書人 鄭在業

潭陽邑內 龍山九仁商店 米穀貿易 委託販賣 李在鏞 電話三四番

大田面大峙里 大峙金融組合

大田面大峙里 大田面酒造組合

大田面大峙里 大田面酒造組合長 大久保邦太郎

大田面甲鄕里 裵南洙

大田面同木里 趙英日

大田面大峙里 末田一郎

大田面事務所 職員一同

水北面羅山里 田中秀

水北面事務所 職員一同

九岩面事務所 職員一同

九岩面江亭里 玄泰燮

武面事務所 職員一同

武面東山里 鳳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貞面事務所 職員一同

武面東山里 呂章鉉

貞面貞石里 呂運律

金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龍面斗長里 許東烈

潭陽邑內 羅州馬淵自動車部 潭陽營業所

大田面大峙里 李吉東

潭陽邑內 土地異動地調査 土木請求 金柄甲

大田面甲鄕里 裵濟暢

潭陽邑 穀物貿易商 金三甫

水北面大舫里 奇雲度

潭陽邑 金璟煥

水北面大舫里 禹滿鍾

潭陽邑 미싱會社 柳相桓

武面鳳安里 許鍾烈

潭陽邑 湊孝四郎

月山面 朴準永

宜寧

宜寧自動車組合 代表組合員 李祐植 事務理事 李仁宰 電話七番

宜寧郡鳳樹面産業組合 理事 後藤虎雄

宜寧郡華陽面釜谷里 金仁大

宜寧救世醫院 高達升

宜寧邑內 李時玹

朝鮮土地測量社宜寧支社 徐勳

宜寧郡嘉禮面 職員一同

宜寧郡華陽面 職員 韓昌洛 辛止洙 韓彭祚

宜寧邑內 沈相炎

宜寧郡谷面中橋里 李秉學 李秉喆

龍德面井洞里 李道載

宜寧郡廳 職員一同

宜寧郡華陽面上二里 韓性洛

宜寧郡富林面立山里 立山青盟 立山少盟

宜寧郡龍德面井江里 盧正商

宜寧郡芝正面 職員一同

宜寧邑內 黃鶴鳳

宜寧金融組合 職員一同

宜寧郡上井面德橋里 姜潤基 姜仲基

宜寧郡華陽面釜谷里 朴永憲

宜寧邑東洞 李弘友

宜寧郡上井面下村里 南龍熙

宜寧郡上井面下村里 許汶九

宜寧郡華陽面上二里 韓聲洛

宜寧郡華陽面釜谷里 辛鎭洙

宜寧郡華陽面中村里 金用胤

宜寧郡上井面下村里 曹永模

宜寧郡上井面德橋里 劉宜鐘

宜寧郡七谷面外橋里 河致源

宜寧郡七谷面外橋里 金昌祐

宜寧郡七谷面陶山里 許潾

宜寧邑內 朴熙烈

宜寧邑中洞 嚴敬文

宜寧邑內 金碩善

宜寧郡嘉禮里 崔明鶴

宜寧郡嘉禮里 尹炳圭

宜寧邑內 金恩甲

宜寧邑內 許禎圭

宜寧邑內中興旅館 孫漢爽

宜寧邑內司法代書 李汝鎭

宜寧郡富林面立山里 安鍵

宜寧郡富林面立山里 立山人

宜寧郡柳谷面世干里 李永世

宜寧郡富林面立山里 安東濟

宜寧郡柳谷面世干里 田漢重

宜寧郡鳳樹面西岩里 鄭瀅熙

宜寧郡芝正面渚洞 徐祥載

宜寧邑人珍商店 申學杓

宜寧郡華陽面上二里 金沂鎬 金平鎬 金永鎬

宜寧郡上井面 職員一同

宜寧郡大義面 職員一同

宜寧郡富林面新反里 權載默

宜寧郡柳谷面世干里 田炳準

宜寧郡洛西面全火里 李正斗

宜寧邑內 孫洪晙

宜寧郡鳳樹面 職員一同

宜寧郡宮柳面 田亨植

宜寧郡上井面下村里 曹萬濟

宜寧郡華陽面上一里 沈相浩

宜寧郡龍德面井洞里 李亮載

宜寧郡宜寧面茂田里 李淳雨

宜寧邑內 孫洪澤

宜寧郡富林面立山里 安稷相

宜寧郡洛西面 職員 李亨世 李景世 李承文

宜寧邑錦泉旅館 金永泰